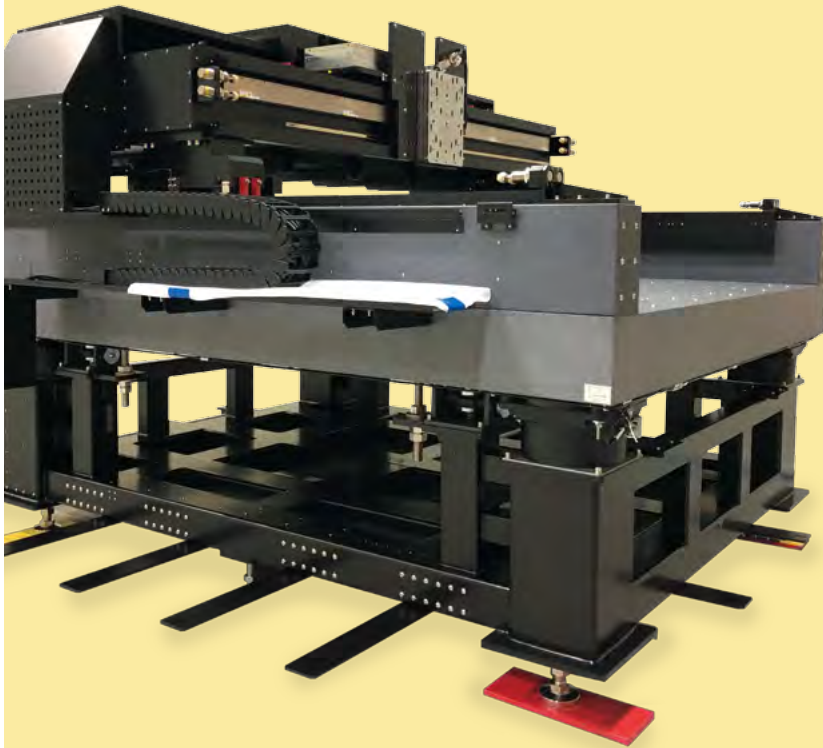


IBK가 만드는 **중소기업** **CEO Report**

CEO STORY

이광 (주)코아시스템즈 회장

초정밀 장비 분야 글로벌 중소기업 꿈꾸다



리페어 갠트리 스테이지

패널 자동광학검사^{AOI} 후
검출된 디펙트를
응용 커팅, 드릴링 등을 통해
결점을 제거하고 양품화로 수율을
향상시키는 설비의
정밀 스테이지.

IBK NEWS

제69회 희망중소기업포럼
노동개혁,
상생과 연대로 해법 모색해야
P.02

CEO ACADEMY

끝없이 오르는
전 세계 물가
P.06

ESG FOCUS

MZ세대가 생각하는 ESG
그리고 기업의 선택
P.26

CONTENTS

2023. March. Vol_216



발행일 2023년 3월 8일(통권 제216호)
등록번호 서울중라 00429
발행인 김성태
편집인 조봉현
발행처 IBK기업은행(www.ibk.co.kr)
주소 서울특별시 중구 을지로79(을지로27가)
Tel 02-729-6520
Fax 0505-077-0850
기획 IBK경제연구소
편집디자인제작 한국경제매거진(주)
인쇄소 (주)타라TPS
문의 031-945-1080

※<IBK가 만드는 중소기업 CEO REPORT>의
저작권은 IBK기업은행에 있습니다. IBK기업은행의
동의 없이 무단으로 이 책에 실린 모든 글과 그림,
사진을 사용할 수 없습니다.

※비매품



찾아가는 이메일 서비스
구독 신청



<중소기업 CEO 리포트>
지난호 보기



세계 경제 흐름을 읽는 언어
인플레이션

06_ **FIGURE**
끝없이 오르는 전 세계 물가

08_ **ISSUE**
2023년
인플레이션은 멈출 것인가?

12_ **HISTORY**
인플레이션이 좌우해 온
세계 경제

16_ **CASE**
인플레이션을 역이용하라

01_ **시론**
국내 경기 하락 장기화되나?

02_ **IBK NEWS**
제69회 희망중소기업포럼
노동개혁, 상생과 연대로 해법 모색해야

20_ **CEO STORY**
이광 (주)코아시스템즈 회장
초정밀 장비 분야 글로벌 강소기업 꿈꾸다

26_ **ESG FOCUS**
MZ세대가 생각하는 ESG
그리고 기업의 선택

30_ **GLOBAL MARKET**
세계화의 미래

34_ **MARKET FINDER**
대한민국 중소기업 국가대표
공동 브랜드 '브랜드K'

36_ **CEO'S GURU**
5,127번의 도전이 만든 혁신
제임스 다이스

38_ **IBK & START-UPS**
이비오(주) 윤진원 대표
헤드리스(주) 남궁지한 대표
(주)코솔러스 김성현 대표
(주)에스엘즈 이유미 대표

42_ **WITH IBK**
수처리해 혁신적 효율을 더하다
이건호 (주)로스웰워터 대표

44_ **POLICAST**
유니콘 기업의 시작은 스타트업!

46_ **COMPANY & LAW TAX**
주식 양도 시 어떤 세금이 부여될까?

48_ **COMPANY & LAW LABOR**
직장 내 무엇이 부당한 차별이고,
무엇이 정당한 차별일까?

50_ **ECONOMIC REVIEW**
한눈에 읽는 경제 동향

52_ **IBK SUPPORT**
중소기업 해외 진출
IBK기업은행이 도와드리겠습니다!



시론



IBK경제연구소 소장
부행장 조봉현

어려워지고 있는 경제가 언제쯤 회복될까에 대한 궁금증이 매우 크다. 정부는 올해 하반기에는 회복될 것으로 예견하는 반면, 경제 여건이 개선되지 않으면 내년 이후가 되어야 회복될 것이라는 전망도 우세하다.

우리나라는 경기 선행과 동행지수 간 시차가 길어지며 불확실성이 확대되고 있다. 평균적으로 선행지수는 동행지수를 5~9개월 정도 선행하나, 이번에는 선행과 동행지수 간 시차가 17개월 이상으로 큰 편이다.

코로나19 영향에 따른 공급망 차질로 예년보다 재고가 많이 쌓였고, 코로나19 기간 동안 경기와 무관하게 상승했던 주가가 급락하는 등 금융 시장과 실물경제 간 괴리가 커진 것이 선행지수의 예측력을 저하시키고 있다. 경

기하강기가 시작되는 현시점에서 보면, 선행지표 하락의 주요 원인인 재고 축적과 자산 가격 하락이 길었던 만큼 경기 하락

국내 경기 하락 장기화되나?

이 장기화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다.

우리의 교역 상대국 모두가 경기 상황이 좋지 않은 것도 경기 하락 장기화를 전망하게 되는 또 하나의 요인이다. 우리 교역 상대국 중 일부만 경제위기를 겪었던 과거와 달리 2023년에는 교역 상대국 모두 평년을 하회하는 성장 둔화(침체)가 예상된다.

한편 성장을 견인할 경제주체(가계·기업·정부)의 여건도 녹록치 않다. 우리나라의 가계는 주요국 대비 높은 부채 수준 때문에 고금리 정책에 대한 부담이 특히 높고, 주택 가격 등 자산 가치 하락으로 소비 여력이 크게 위축되고 있다. 기업은 매출이 크게 감소하고 코로나19로 인한 대출 탓에 부채 수준이 높은 가운데 향후 정책 지원 종료와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사태 여파로 자금 조달 여력이 크게 악화되고 있다. 정부는 재정 건전성에 방점을 둔 예산안 편성으로 정부 주도의 성장 견인도 기대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경기수축기 신용 리스크 확대에 유의하면서도 어려울 때 경제주체들이 경제 활동을 원활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적절한 금융 지원에 더욱 힘써 나가야 할 것이다. 



환영 인사 하는 김성태 IBK기업은행장 김 행장은 희망중소기업포럼에 참여해 한국 경제에서 갖는 중소기업의 역할을 강조하며 IBK의 지속적인 지원을 약속했다.

노동개혁, 상생과 연대로 해법 모색해야

지난 2월 24일 웨스틴 조선 서울에서 열린 제69회 희망중소기업포럼에서는 '주요 고용노동 정책방향'을 주제로 현재 한국 사회를 관통하는 노동 이슈와 정부의 정책방향이 다뤄져 참석자들의 관심이 집중되었다.

“코로나19로 3년여 만에 재개되는 희망중소기업포럼에 참석한 내빈 여러분, 무엇보다 저희 IBK기업은행을 아끼고 사랑해주시는 중소기업 최고경영자^{CEO}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녹록지 않은 경영 환경 속에서 오늘 이 자리가 CEO 여러분에게 조금이나마 힘이 되길 희망합니다.”

김성태 IBK기업은행장은 이 같은 환영 인사로 제69회 희망중소기업포럼의 문을 열었다. 2019년 이후 코로나19로 인해 중단되었

다가 3년여 만에 재개된 희망중소기업포럼에 수많은 인파가 운집해 행사장 내부는 한껏 들뜬 분위기였다.

경제 성장 도모 위해 가치금융 추진할 것

김 행장은 “한국 경제가 복합적인 위기에 처해 있지만 돌이켜보면 어렵지 않은 때가 없었다”며 “우리는 국가적 위기를 극복하고 성장해 온 저력이 있다. 그 중심에는 한국 경제의 기반인 중소기업이 역할을 했었고 지금 그 어느 때보다 중소기업의 역할이 중요한 때”라고 말했다.

이어 김 행장은 “희망중소기업포럼은 기업, 정부, 언론, 학계 그리고 금융이 모여 중소기업을 둘러싼 다양한 이슈들을 논의하고 그 해법을 찾아 온 매우 특별한 포럼”

이라고 설명하며 “앞으로도 중소기업 발전을 위한 공감과 협력의 장으로서 그 역할을 지속 강화할 수 있도록 기업은행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마지막으로 김 행장은 지난 1월 취임 때도 언급했던 것처럼 “복합위기 경제 상황 속 중소기업의 위기 극복을 최우선으로 삼고 관련 과제들을 속도감 있게 추진하겠다”고 강조하며 동시에 “중소기업과 함께 혁신적인 경제 성장을 도모하고 고객과 함께 더 나은 세상을 만들어 가는 ‘가치금융’을 반드시 실현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중소기업을 둘러싼 녹록지 않은 상황들이 산재해 있지만 좋은 면은 활용하고 안 좋은 면은 극복하면서 지금의 위기를 발판 삼아, 더 높이 도약할 수 있도록 기업은행과 희망중소기업포럼이 함께 하겠다”고 포부를 전했다.

부당한 관행 개선할 시스템 확립 최우선

이어 ‘주요 고용노동 정책방향’을 주제로 한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의 메인 발표가 이어졌다.

이 장관은 스위스 국제경영개발대학원^{IMD}이 조사한 ‘2022년 국가 경쟁력 순위’에서 총 63개국 가운데 42위에 그친 한국의 노동 시장 평가를 지적하며 노동개혁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특히 지난해 화물연대 파업을 예로 들며 대기업과 정규직 중심의 노사관계로 인해 노사가 서로 대화하고 타협하며 책임감 있게 문제 해결에 나서는 모습이 결여되어 있음을 꼬집었다. 그러면

서 일자리 창출 여력 감소에 따른 신규 채용 기피, 저임금·비정규직 양산 및 중소기업 고용 여건 악화를 초래하는 노동 시장의 이중구조화 등 구조적 문제가 우리 노동 시장에 내재된 문제라는 점을 거듭 지적했다.

노동개혁과 관련해서는 노사 법치주의 확립, 노동규범 현대화, 중대재해의 획기적 감축을 주요 실천과제로 꼽았다. 앞서 윤석열 대통령이 올 초 신년사에서 “노동개혁의 출발점은 노사 법치주의이며, 노사 법치주의야말로 불필요한 쟁의와 갈등을 예방하고 진정으로 노동의 가치를 존중하는 길”이라고 강조한 만큼 노조 회계 투명성 제고, 불법적이고 부당한 관행 개선, 채용 공정성 개선을 최우선으로 시스템 확립에 나서겠다는 것이 고용노동부의 방침이다. 이와 함께 포괄임금 오남용, 임금체불, 부



**경제 불확실성에
대응하기 위한 연대 전략**
코로나19로 3년여 만에 다시 열린 제69회 희망중소기업포럼에서는 경제 관계자들이 한자리에 모여 어려운 경제 환경을 헤쳐 나가기 위해 다양한 정책방향에 관해 논의했다.



당 노동행위, 불공정 채용, 직장 내 괴롭힘 등 5대 불법·부조리 근절을 위해 상시 감독체계 구축과 제도 개선을 병행할 계획이다.

또한 이 장관은 연장근로시간 단위를 최대 연 단위까지 확대하고 선택근로제 정산 기간을 전 업종 3개월까지 확대하는 동시에 근로자의 11시간 연속 휴식을 보장하는 등 근로시간제도 개선을 위해 2월 입법예고를 거쳐 상반기 중 정부안을 국회에 제출하겠다고 전했다. 이어 과건제도 선진화, 노사관계 대등성 확보 등 추가적인 개혁과제 추진에 대한 의지를 피력하기도 했다.

Advice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이 제시한 주요 고용노동 정책방향

1. 노동개혁 완수

노사 법치주의를 확립하기 위해 노조 회계 투명성 제고, 불법적이고 부당한 관행 개선, 채용 공정성 개선을 최우선으로 해 관련 법령을 정비하고 5대 불법·부조리 근절을 위한 제도 개선에 나서겠다. 근로시간제도를 유연하게 운영할 수 있도록 정부 입법안을 마련할 계획이며, 자기규율 예방체계를 확립해 중대재해를 감축해 나가겠다.

2. 노동 시장 이중구조 개선

청년의 공정한 보상 기회를 보장하고 고령자의 계속고용을 촉진하기 위해 임금체계 구축 패키지 신설, 통합형 임금정보 시스템 구축 등을 지원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조선업 상생모델 구축을 시작으로 상생과 연대의 산업·노동 생태계를 조성하는 한편, 법적 보호의 사각지대 해소에 필요한 대책을 마련해 나가겠다.

고 기업 수요에 따라 적시에 연결해주는 방안이 필요하다”며 “업종·지역별로 맞춤형 채용 서비스를 지원하고 산업 현장에 바로 투입할 수 있는 핵심 인력을 신속하게 양성하겠다”고 말했다. 또 “내국인 확보가 어려운 기업에 대해 외국인 인력을 유연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장기근속 특례제도 신설, 고용 허용 업종 확대 등을 지원하겠다”고 덧붙였다.

그 밖에도 청년, 여성, 고령자, 장애인 등 대상별로 고용을 확대하는 한편, 기존 급여 지급 위주 방식에서 취업을 지원하고 근로의욕을 촉진하는 방향으로 고용안전망을 개선하겠다고 전했다.

마지막으로 이 장관은 “향후 고용정책 기본계획을 차질 없이 이행함으로써 우리 노동 시장의 체질을 개선해 나갈 계획”이라며 글로벌 스탠더드에 뒤처지지 않는 흔들림 없는 노동개혁으로 중소기업의 도약과 발전을 뒷받침하겠다고 약속했다. 📢

현장 Q&A

현장과 정책을 잇다

박덕환 IBK기업은행
경제연구소 선임연구위원

Q. 연장근로시간 관리 단위를 주 단위에서 최대 연 단위로 확대하게 되면 기업인 입장에서 상당히 만족스러울 것 같다. 상반기 중 관련 법안을 국회에 제출한다고 했는데 언제쯤 시행될 수 있을지 궁금하다.

A. 현재 국회가 여소야대 구조라 쉽지 않은 상황이다. 개혁은 시대적 소명이고 국민의 명령인 만큼 절차적 정당성과 내용의 정당성 위에서 국민적 공감대를 형성하고 야당을 설득해 반드시 통과되도록 하겠다. 구체적인 시기를 말씀드리기는 건 큰 의미가 없을 듯하고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다.

이의현
한국금속공업협동조합 이사장

Q. 대규모 장비를 사용하는 산업 현장의 경우 직원이 아무런 예고 없이 직장을 그만두면 팀워크가 깨지고 대체 인력을 채용하는 데도 상당한 어려움을 겪는다. 그럼에도 근로자는 아무런 처벌도 받지 않는데 개선이 필요하지 않나?

A. 그 부분과 관련해서는 ‘근로기준법’ 내에서 가능한지 살펴봐야겠지만 노동윤리, 경영윤리 범주에서 봐야 하는 문제가 아닌가 생각한다. 기업 입장에서 그러한 애로사항이 있다는 이야기를 많이 듣는데 법적 테두리 안에서 개선이 가능한지 검토해보겠다.

3. 일자리 불확실성에 선제 대응

업종·지역별로 맞춤형 채용 서비스 지원과 산업 현장에 바로 투입할 수 있는 핵심 인력을 양성하겠다. 외국인 인력을 유연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장기근속 특례제도 신설, 고용 허용 업종 확대 등도 지원할 예정이다. 또한 청년, 여성, 고령자, 장애인 등 대상별로 고용을 확대하는 한편, 기존 급여 지급 위주 방식에서 취업을 지원하고 근로의욕을 촉진하는 방향으로 고용안전망을 개선하겠다.

끝없이 오르는 전 세계 물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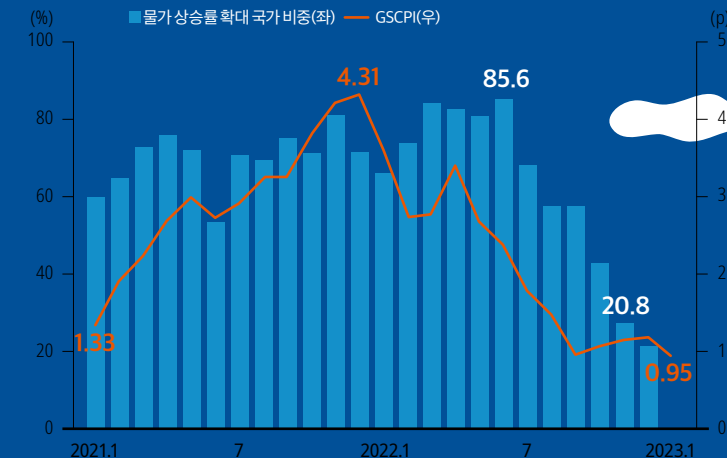
주요국 2023년 기준금리 전망

블룸버그통신은 세계 경제의 90%를 차지하는 주요 23개국의 올해 기준금리 전망을 발표했다. 23개국 중앙은행 중 미국, 유럽 등 12곳이 금리 인상에 나섰고 반대로 9곳은 인하할 것이라는 전망이다.



미국을 시작으로 아시아는 물론 전 세계 주요국들의 물가 상승과 금리 인상은 2022년에 이어 2023년에도 계속될 예정이다. 전 세계 주요국의 인플레이션과 기준금리 현황을 알아본다.

글로벌공급망압력지수^{GSCPI} 및 물가 상승 확대 국가 비중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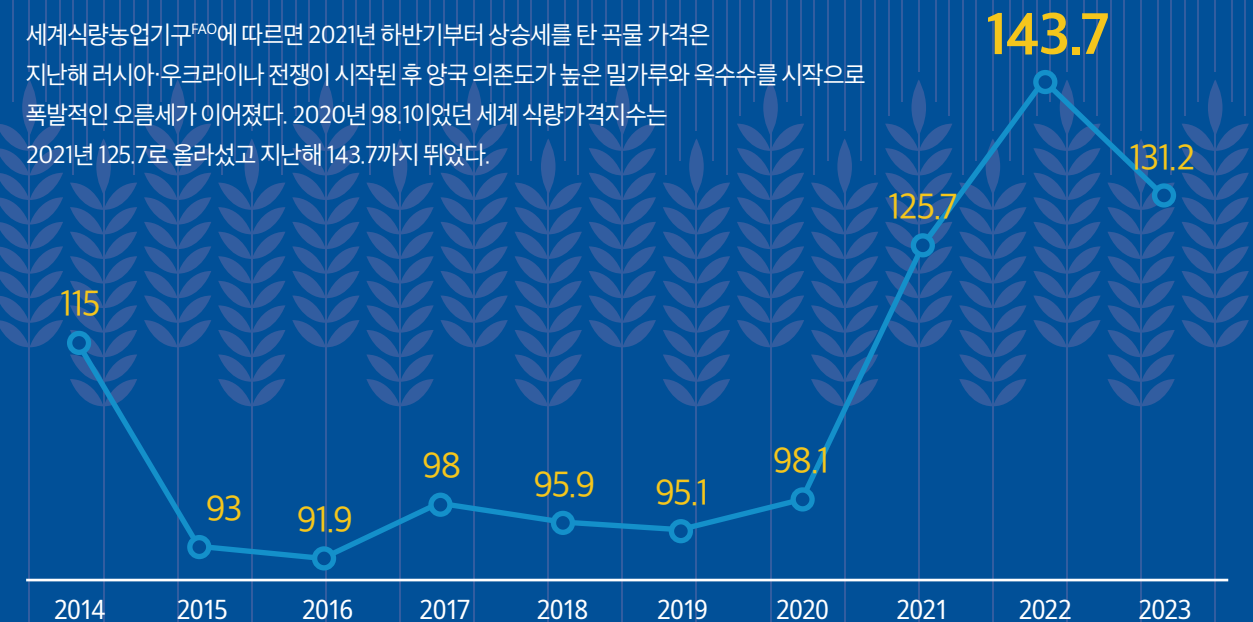


주 물가 상승률 확대 국가 비중은 133개 국가 중 소비자물가 상승률(전년동월비)이 전월 대비 확대된 국가 비중을 의미 자료 미국 연방준비제도^{Fed}, 세계은행^{WB}, 현대경제연구원



세계 식량가격지수

세계식량농업기구^{FAO}에 따르면 2021년 하반기부터 상승세를 탄 곡물 가격은 지난해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이 시작된 후 양국 의존도가 높은 밀가루와 옥수수를 시작으로 폭발적인 오름세가 이어졌다. 2020년 98.1이었던 세계 식량가격지수는 2021년 125.7로 올라섰고 지난해 143.7까지 뛰었다.



주 100=2014~2016년 평균, 2023년은 1월 기준 자료 FAO

•• 최근 글로벌 인플레이션 현상이 점차 완화되면서 세계 경제 향방에 대해서도 낙관론이 조금씩 확산되고 있다. 세계은행^{WB}의 글로벌 인플레이션 데이터베이스를 통해 발표되는 133개국의 데이터를 기준으로 살펴보면 전월 대비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확대된 국가 비중이 2022년 6월에는 약 86%에 달했으나, 12월에는 약

21%까지 낮아졌다.

글로벌 인플레이션이 진정세를 보이는 것은 무엇보다 미국을 포함한 주요국의 강력한 통화 긴축이 이어지고 있기 때문이다. 미국 연방준비제도^{Fed}의 경우 지난 2022년 2월부터 시작해 올해 1월까지 13개월 만에 기준금리 상단을 0.25%에서 4.5%로 4.25%포인트 인상했고, 영국 중앙은행은

2023년 인플레이션은 멈출 것인가?

지난해 전 세계를 강타한 인플레이션이 점차 진정되고 있는 추세다. 다수 국가의 경제성장률 전망치가 상향 조정되고, 글로벌 공급망 역시 개선되고 있지만 2023년에도 여전히 다양한 변수가 존재한다.

디스인플레이션 시작한 미국 지난해부터 강력한 통화 긴축 정책을 이어 오고 있는 미국 Fed는 “디스인플레이션이 시작되었다”고 언급해 인플레이션 안정과 경기 회복에 대한 기대를 높이고 있다.

2021년 12월부터 올해 1월까지 14개월간 0.1%였던 기준금리를 3.5%로 3.4%포인트 높였다. 2022년 6월까지 제로금리를 유지하던 유럽중앙은행^{ECB} 역시 올해 2월에는 3%까지 기준금리를 인상했다. 이외에도 많은 국가들이 통화긴축에 동참하고 있는 덕분에 미국은 시중 통화량이 감소하고, 영국과 유로존은 시중 통화량 증가 속도가 현저히 낮아지는 등 인플레이션 압력이 축소되고 있다.

다음으로는 코로나19 팬데믹을 계기로 심각하게 훼손되었던 글로벌 공급망이 점차 개선되고 있는 것 역시 글로벌 인플레이션 압력을 완화하는 데 도움을 주고 있다. 이는 미국 연방준비은행이 발표하는 글로벌공급망압력지수^{GSCPI} 추이를 살펴보면 잘 알 수 있는데, 이 지수가 2021년 말 4.31로 정점에 달한 후 올해 1월에는 0.95로 빠르게 하락하면서 평균값 제로에 근접하고 있다. 해상운임과 구매자관리지수^{PMI} 등 공급망 관련 주요 지표들을 종합한 GSCPI가 하락하는 것은 그만큼 글로벌 수요가 감소하고, 인플레이션 압력도 완화되고 있음을 시사한다. 단기적으로는 향후에도 이런 추세가 유지될 것으로 예상된다.

높아지는 디스인플레이션 기대

한편, 미 Fed의 경우는 이런 기대에서 더 나아가 디스인플레이션^{Disinflation}이 시작되었다는 표현을 썼다는 데 주목할 필요가 있다. 통상 디스인플레이션은 통화 팽창 또

는 증발을 억제하고 금융 및 재정 긴축을 통해 인플레이션을 장기적으로 안정화시키는 것을 말하는 것으로 생산 수준의 하락과 실업 증가 예방 역시 주요 정책 목표가 된다. 즉, 경기를 희생해서라도 인플레이션을 극복하려는 디플레이션^{Deflation} 유도와는 정책 의도가 사뭇 다르다.

이는 미 Fed가 인플레이션도 안정시키고 경기도 잡을 수 있다는 강한 자신감의 표현이기도 하다. 실제로 9%대까지 치솟던 미국의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어느새 6% 중반까지 추세적인 하락세를 보이고 있는 반면, 실업률은 3%대 중반대로 고용 시장은 여전히 호황이 이어지고 있다. 지난 2월 초에 발표된 국제통화기금^{IMF}의 올해 미국 경제 수정 전망치는 기존 전망치보다 0.4%포인트 높은 1.4%다. 지난해와 비교하면 확연히 성장세가 둔화된 것처럼 보이지만, 미국 경제가 침체로 빠질 가능성은 그만큼 낮다고 하겠다.

이런 낙관적인 전망은 비단 미국 경제에 대해서뿐만이 아니다. 유럽의 경우, 영국과 스페인을 제외하면 다수 국가의 경제성장률 전망치가 상향 조정되었고, 신흥국 및 개발도상국 전체로 봐도 중동과 중앙아시아 같은 일부 지역을 제외하면 전반적으로 경기 회복세가 빨라질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결과적으로 일부 시장에서의 지적처럼 디스인플레이션이 마법과 같은 용어일 수는 있지만, 현재 각국의 인플레이션 추이와 경기 회복 속도를 고려하면 전혀 기대할 바가 되지 못하는 상황도 아니다.



이부형
현대경제연구원 이사대우
일본 중앙대 경제학 석박사를 취득했으며, 대구경북연구원 동향분석실장을 거쳐 현재 현대경제연구원 이사대우를 맡고 있다.

인플레이션 안정을 위한 선결 조건들

하지만 제롬 파월 Fed 의장이 끊임없이 강조하는 바와 같이 향후 미국을 포함한 글로벌 경제가 디스인플레이션을 확신할 수 있는 상황까지 가기에는 아직 극복해야 할 난관이 산적해 있는 것 역시 분명한 사실이다.

그중에서도 가장 주목해야 할 것은 미국 경제의 향방이다. 현재, 미국 경제는 견조한 노동 시장이 버텨주면서 적어도 연착륙 또는 호황이 이어지는 무착륙 **No-landing** 가능성이 커지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통화 긴축으로 인플레이션이 진정되는 가운데 실물경기의 호조세가 당분간 지속된다면 디스인플레이션에 대한 확신도 가능할 것이라고 판단된다. 다만 서비스물가는 물론 렌트와 귀속임대료를 더한 거주 비용 상승률이 여전히 전체 소비자물가 상승률을 상회하는 수준을 유지하고 있어 통화 긴축의 누적 효과가 나타나고 있다고 보기에는 미흡한 실정이다.

다음으로는 중국 경제의 재개 효과 **Reopening**

Effect가 인플레이션에 미칠 리스크에 대해서도 관심 있게 지켜봐야 한다. 글로벌 경제 성장의 30% 이상을 차지하는 중국 경제가 재개된다면 회복과 침체 사이에서 혼조세를 보이는 세계 경제에는 분명 긍정적 영향을 미칠 것이다. 다만 역설적이게도 지금까지 위축된 글로벌 수요도 동시에 회복시켜 국제 상품 가격은 물론이고 운송료 등 국제 서비스 가격의 불안정성을 확대시키는 등 글로벌 인플레이션을 자극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도 있다.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의 향방 역시 큰 변수다. 현재의 글로벌 인플레이션은 코로나19 팬데믹 극복을 위한 재정 및 통화 팽창의 결과이기도 하지만 기름을 끼얹은 것은 양국 간 전쟁이다. 전쟁의 장기화가 피할 수 없어 보이는 것도 문제지만, 주변국으로 확산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으로 치닫고 있다는 것이 더 큰 문제다. 만약 이런 우려가 현실이 된다면 에너지를 비롯한 각종 원자재와 식량 가격 불안은 물론 글로벌 공급망 전체가 또 한 번 위기 상황에 직면할 수도 있다.

이 경우 미국을 포함한 주요국들의 통화 정책은 전환 시점을 저울질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보다 더 높은 강도로 진행될 수 있고 글로벌 경제도 그만큼 더 어려워질 것이다.

한편 지구 환경 변화가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지는 주목해야 할 대목이다. 지난해 러시아의 석유 및 천연가스 금수조치로 발생한 유럽발 에너지 위기가 진정된 것에는

원자력 재가동, 신재생에너지 확대, 절전과 같은 유럽 각국의 정책적 노력이 있었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무엇보다 겨울철 이상 고온 현상으로 에너지 수요가 현저히 줄어든 점이 큰 역할을 했다. 만약 올해 혹서 혹은 혹한 현상이 발생하게 되면 유럽발 에너지 위기가 재현되면서 인플레이션이 강한 자극을 받을 수 있다. 더군다나 최근에는 사우디아라비아 같은 기존 산유국에 러시아 등이 참여하는 주요 산유국 모임인 석유수출국기구 플러스 **OPEC+**가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감산 방침을 이어갈 것으로 결정함으로써 현재 배럴당 80달러 내외 수준을 유지하고 있는 국제 유가가 다시 100달러 선에 달할 수 있다는 전망마저 나오고 있는 실정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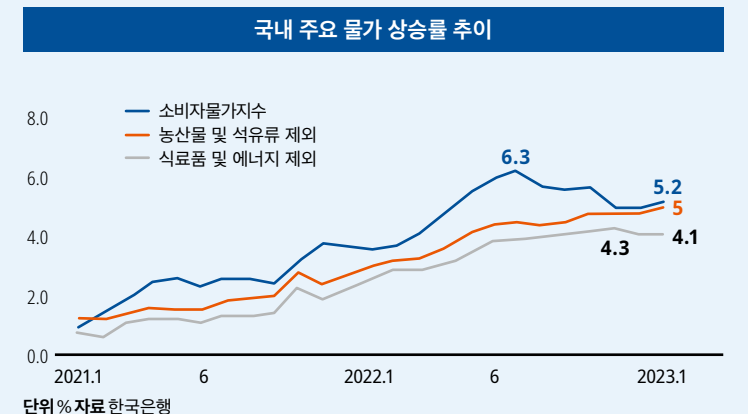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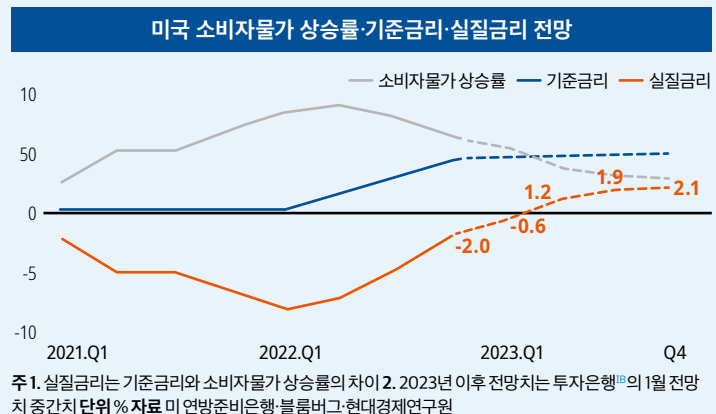
더 큰 문제는 국내 인플레이션과 경제

진짜 문제는 국내 경제다. 국내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지난해 7월 6%대 초반에서 올해 1월에는 5%대 초반으로 진정되면서 인플레이션 정점론이 힘을 받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물론, 한국은행의 인플레이션 안정 목표인 2% 수준까지 하락하지는 않았지만, 현재로서는 전년도 기저 효과까지 고려하면 올해 안으로 2% 중후반 수준까지 디스인플레이션이 지속될 가능성이 커 보인다.

하지만 과연 이런 기대가 실현될 수 있을 것인지는 누구도 장담할 수 없을 만큼 불투명한 상황이라는 점도 잊어서는 안 된다. 통화정책은 당분간 긴축 상태를 유지

할 것으로 보이지만 경기 여건 변화에 따라 언제든 바뀔 수 있다. 100%에 가까운 수입 의존도를 보이는 원유와 천연가스는 물론 곡물 및 주요 원자재에 대한 높은 대외 의존도 역시 고민해야 할 대상이다. 미국, 중국 등 주변국 정세 변화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외환 시장의 불안정성 역시 부담이다. 공공서비스 요금 상승과 같은 공공 부문의 인플레이션 압력이 커지고 있다는 점 역시 불안 요인이다.

현재 우리 경제는 인플레이션을 극복하기 위해 풀어야 할 많은 난제에 직면해 있을 뿐 아니라 기술적인 경기 침체까지 겹쳐 단기적으로는 고물가·저성장이라는 스태그플레이션 **Stagflation** 위기에 처해 있다. 따라서 혹시라도 지나친 낙관론에 의지하게 되면 통화나 재정, 금융에 이르기까지 섣부른 정책 방향 전환이 이루어질 수 있고, 자칫하면 인플레이션 안정을 위한 지금까지의 노력을 물거품으로 만들 수 있음은 물론 경제 전반에 큰 위기를 맞을 수도 있다는 점에 유의해야 할 시기다. 



인플레이션이 좌우해 온 세계 경제

인플레이션은 어제오늘의 일도, 현대의 산물도 아니다. 화폐가 존재한 이후로 인류의 역사와 함께해 온 인플레이션의 오래된 과거를 살펴보면 지금의 인플레이션 위기에 대응할 단서를 찾을 수 있을지도 모른다.

초인플레이션 겪은 베네수엘라 지난 2020년 물가 상승률이 2,400%에 달한 베네수엘라는 간단한 장을 보기 위해 현금을 가방 가득 챙겨 가야 했다. 2021년 고액권 지폐를 새로 발행했지만 최고액인 100만 볼리바르는 우리 돈 600원밖에 되지 않는다.

• 인류의 역사적 발자취를 설명하는 방식 중 의외로 상당한 설득력으로 설명 가능한 방법 가운데 하나가 ‘인플레이션을 통한 관점’이다. 유사 이래 많은 통치자들이 자신의 꿈을 위해 혹은 백성들의 인심을 얻기 위해 어마어마한 화폐 발행을 남발했으며, 이 과정에서 하이퍼인플레이션에 준하는 인플레이션에 직면한 경우가 많았기 때문이다.

권력의 욕망으로 시작된 하이퍼인플레이션
하이퍼인플레이션은 인플레이션이 극적

으로 치솟는 시기를 말한다. 또한 적어도 한 달 동안 인플레이션이 50% 이상 유지되는 경우를 초인플레이션이라고 정의한다. 초인플레이션이 발생하면 사람들은 돈을 소유하거나 가치를 인정하려 하지 않는다. 중국만 보더라도 쉽게 확인할 수 있다. 중국이 인류 최초로 사용하기 시작해 발달해 온 지폐는 화폐 가치를 보장해주지 않았을 뿐더러 지긋지긋한 인플레이션을 유발한 장본인이다.

위정자들은 자신의 사치 혹은 안위를 위해 필요한 비용을 지불하려고 추가적으로

지폐를 발행한다. 그리고 한번 지폐 발행을 통해 필요한 자금을 조달해본 위정자는 지폐 발행의 달콤함에 젖어든다. 그리고 예산이 부족해질 때마다 지폐를 추가로 발행하고 이로써 인플레이션이 유발된다. 이 과정은 왕조가 바뀌어도 끊임없이 반복되었다. 13세기에도 중국은 인플레이션의 늪에 빠져 회생 불가능한 상태에 이르렀다. 당시 송나라 황제는 양심의 가책을 느껴 10년 동안 밤잠을 이루지 못했다고 한다. 송 황제는 지폐를 환수하고 불태우기까지 했으나 아무런 성과도 거두지 못했다. 결국 1264년 화폐는 가치를 잃고 붕괴되었다.

화폐가 붕괴하기 시작하는 초창기에는 국가나 통치자가 과도한 채무에 시달리는 현상이 나타난다. 감당하기 힘든 채무가 생기면 국가나 통치자는 인플레이션을 이용해 자신의 의무를 회피하려고 한다. 이러한 유혹은 언제나 존재한다. 인플레이션이 결코 사라질 수 없다고 예상하는 이유다. 돈과 통치자가 존재하는 한 인플레이션도 사라질 수 없다.

다시 짚어낼 수 없는 지폐의 가치

지금까지 설명한 하이퍼인플레이션은 문명이 상대적으로 덜 발달한 혹은 경제 지식이 부족한 고대나 중세시대에 더욱 빈번히 전개된 것으로 생각하기 쉽지만, 실제 하이퍼인플레이션이 가장 많이 유발된 시기는 20세기에 들어서다. 물가가 가장 안정적이었던 시기는 어찌 보면 고대시대였

다고 할 수 있다. 고대에는 일종의 상품 화폐라고 해서 가축, 곡식, 소금 등이 화폐로 사용되었다. 그러다 보니 나뭇의 가치를 유지하고 보존할 수 있었다. 하지만 지폐는 다르다. 지폐 화폐를 남발할 경우 자칫 잘못하면 그냥 종잇조각으로 전락하는 경우가 많다.

초인플레이션이 발생하면 사람들은 돈을 소유하거나 가치를 인정하려 하지 않는다. 실제로 빈번하게 하이퍼인플레이션을 경험한 바 있는 베네수엘라 정부는 2016년 국민들에게 자급자족을 권장했다. 인플레이션이 발생하면 흔히 자신의 구매력이 줄어든다는 걸 어느 정도 알고 있으나, 얼마나 줄어드는지는 통상적으로 잘 알지 못한다. 일반적으로 40년 동안 상승하는 인플레이션율이 2%라고 가정하면 구매력은 절반으로 감소한다. 그런데 인플레이션율을 4%라고 가정하면 구매력은 25% 수준으로 감소한다.

지폐가 훼손되면 다시 찍으면 된다. 하지만 화폐에 대한 신뢰가 떨어지면 원래 상태로 되돌릴 수 없다. 신뢰란 지폐처럼 원하는 대로 찍어낼 수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돈은 지분을 이행하겠다는 추상적인 약속일 뿐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개념이 생긴 이래 제후, 황제, 통치자, 정치인, 독재자와 같은 사회 지배계층들은 화폐를 끊임없이 악용해 왔다. 그들은 한순간의 이익에 눈이 멀어 화폐 체계와 화폐에 좌우되는 국민 경제를 모두 파괴시켰다. 더 중요한 문제는 인플레이션의 최대 피해자



박정호
명지대 특임교수
한국경제산업연구원 부원장,
혁신클러스터학회 학회장 등을
맡고 있으며, 다양한 경제 방송
및 집필 활동을 하고 있다.

는 늘 빈곤층이라는 사실이다. 2000년대 이후 금융위기, 남유럽 재정위기, 코로나 19 팬데믹 등을 극복하기 위해 대규모 통화를 주기적으로 투여했다. 물론 이러한 통화량 급증은 위기 극복을 위한 방안이었지만, 이것은 부동산, 유가증권과 같은 자산 가격의 인플레이션을 유발했고 자산이 상대적으로 적거나 없는 빈곤층은 더욱 가난해졌다.

전쟁의 무기로 사용된 인플레이션

인플레이션은 전쟁에 이용되기도 한다. 제2차 세계대전 당시 독일은 전쟁에서 이기기 위해 영국에 인위적으로 인플레이션을 유발하는 작전을 전개했다. 이른바 작전명 ‘베른하르트’다. 아이디어는 단순했다. 독일은 영국 경제를 파탄으로 몰고 가기 위해 위조지폐를 대량 유통시켰다. 한 국가에 위조지폐가 범람하면 진폐와 구분되지 않기 때문에 대대적인 인플레이션이 발생하고, 결국 국민은 자국 통화에 대한 신뢰를 잃는다. 즉, 국가의 통화가 제 구실을 하지 못하게 되면 경제가 파탄에 이르러 전쟁에서 수월하게 우위를 점할 수 있을 거라는 판단이었다.

이를 위해 독일은 화가, 인쇄업자, 동판조각가, 식자공, 석판인쇄사, 심지어 미용사까지 강제 동원했다. 이때 동원된 인력들은 대부분 유대인들이었다. 결국 독일은 1942년부터 1945년까지 위조지폐 900만 장을 찍어냈다. 이는 실제 영국에서 유통되는 진폐의 13%에 해당하는 분량이었다.

독일이 제작한 위조지폐를 1943년 처음으로 영국 중앙은행이 발견했는데, 너무나 정교해 지금까지 발견된 위조지폐 중 가장 위험한 지폐로 알려져 있다. 이 작전은 대규모로 실행되지는 못했다. 당시 독일 공군이 막대한 자금을 살포하기 위한 비행연료가 부족하다는 이유로 반대하면서 결국 실패했다.

흥미로운 것은 영국도 똑같은 생각을 갖고 있었다는 사실이다. 영국도 독일 화폐를 위조한 뒤 대량 살포해 독일 경제를 무너뜨리겠다고 생각하며 이를 추진하다가 중간에 포기한 바 있다. 당시 베른하르트 작전을 수행하기 위해 만들어진 위조지폐가 현재 경매에서 수천만 파운드에 거래되고 있다는 점도 매우 아이러니하다.

인플레이션으로 사라진 지주계급

인플레이션이 뜻하지 않은 행운을 가져다주는 경우도 있다. 대표적인 사례가 우리나라의 경우다. 해방 이후 한국전쟁이 발발하기 이전 우리 경제는 가장 극심한 인플레이션을 경험했다. 1945년 9~12월에는 물가가 무려 112.9%나 뛰었고, 1947년에는 전년 말 대비 128.1%나 상승했으며, 1949년에는 전년 말 대비 무려 486.4% 상승했다.

남한의 ‘농지개혁법’은 바로 이런 인플레이션 상황에서 진행되었다. 남한 정부는 5년 연부보상(年賦補償)을 조건으로 소유자로부터 유상으로 토지를 취득해 이를 소작농에게 나누어주었다. 이 과정에서 지주의

재산 형태는 토지라는 실물자산에서 채권 내지 현금이라는 현물자산으로 재산의 형태가 바뀌게 된다.

반면, 소작농은 토지라는 실물자산을 취득하게 된다. 지주는 현물, 소작농은 실물 형태로 재산을 보유하게 된 상황에서 인플레이션이 유발되었기 때문에 인플레이션으로 인한 손해는 고스란히 지주의 몫이 되었다. 소작농이 갖고 있는 토지의 가치는 상승하지만, 토지를 반납하고 취득한 지주들의 채권이나 현금의 가치는 날이 갈수록 떨어졌기 때문이다. 결국 전체 농지의 92%가 자작농에게 돌아갔고, 수천 년간 이어온 지주계급은 우리 사회에서 영원히 해체되었다.

흔히 인플레이션은 개별 경제주체에게 커다란 고통을 가져다주는 요인으로 분류된다. 아서 오쿤이 최초로 고안한 경제고통지수* 역시 특정 시점의 물가 상승률과 실업률의 합으로 계산된다는 점에서 인플레이션이 경제에 얼마나 커다란 고통을 유발하는 요인인지 쉽게 이해할 수 있다. 이런 인플레이션이 우리 경제에서는 분배 정의를 실현하는 데 일부 기여했다는 점은 아이러니가 아닐 수 없다.

제2차 세계대전 이후 해방한 많은 나라가 아직도 비대칭적인 농업 구조로 인해 고심하고 있고, 대표적으로 필리핀 역시 농지 개혁과 근대화·산업화에 실패해 아직도 15대 지주가문이 국부(國富)의 50%를 차지하고 있다는 사실을 떠올려볼 때, 해방 이후 우리가 직면했던 기록적인 인플레이



화폐의 탄생과 욕망 인류 최초로 지폐를 사용한 중국은 13세기 송나라 때 무분별한 지폐 발행으로 인플레이션의 늪에 빠졌고 1264년 화폐는 가치를 잃고 붕괴되었다.

션은 뜻하지 않은 행운이었을지도 모를 일이다.

우리 인류가 존재하는 한 인플레이션으로 인한 영향은 계속되어 왔고, 지금도 여전히 그러하다. 매년 100억 달러의 지폐가 폐기된다. 은행권 지폐로는 7억1,500만 장, 종이 무게로는 7,000톤, 쓰레기 수거차 1,750대를 족히 채울 수 있는 분량이자 미국에서 유통되는 연간 통화량의 3%에 달하는 액수다. 이 많은 돈을 대체 어디에서 폐기 처분해야 한다는 말인가? 흔히 폐지는 내화성 기화, 무대용 자재로 사용되는 섬유판, 매트리스 충전재, 문구용품, 각종 종이 제품, 봉제인형 충전재로 사용되며, 미국 델라웨어주는 매일 4통 분량의 지폐를 가공해 거름으로 준다. 이러한 통계를 볼 때, 인플레이션은 여전히 현재 진행형인 역사적 과정인 듯하다. 

*경제고통지수

기상 용어인 볼레지수를 경제학에서 빌려 경제학자 아서 오쿤이 고안한 경제지표로, 인플레이션률, 실업률, 국민소득 증가율 등으로 국민들이 느끼는 경제적 체감도를 나타낸다. ‘물가 상승률+실업률=고통지수’로 물가 상승률이 8%, 실업률이 7%면 고통지수는 15가 된다.

인플레이션을 역이용하라

역사적으로 기록될 만큼 어려운 인플레이션의 시기를 지내고 있다. 하지만 과거에도 이러한 위기가 존재했다. 그 시기 어떤 기업은 사라졌지만 어떤 기업은 위기를 발판 삼아 거대 기업으로 성장하기도 했다. 무엇을 어떻게 이용할 것인가는 각자의 선택이다.



역사상 최악의 스태그플레이션으로 기록된 미국의 대공황 1930년대 미국을 강타한 대공황 기간 미국의 산업 생산량은 44% 감소했고 실업률은 25%에 이르렀다. 당시 약 10만 명의 미국인이 구소련으로 이민을 신청할 정도로 어려운 시기였다.



강세완
이화여대 경제학과 교수
미국 캘리포니아 주립대 경제학과
조교수, 한국은행 자문교수,
과학기술부 국가 R&D 투자전략
위원 등을 역임했으며
현재 이화여대 경제학과 교수로
재직 중이다.

이번 겨울은 유독 날씨가 추웠다. 하지만 3월이 시작되면서 어김없이 따듯한 봄이 왔음을 알 수 있다. 그럼에도 올해 우리나라를 둘러싼 경제적·지정학적 환경은 좋아지지 않고 있다. 지난 1월 국제통화기금(IMF)은 지난해 발표한 2023년 세계 경제 전망을 수정 발표 했다. 그 내용을 보면 전 세계 경제는 예상보다 좋아질 전망이지만 유독 한국 경제는 이전의 예상보다 더 하락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IMF는 올해 전 세계 경제성장률 전망을 2.7%에서 2.9%로 올렸지만 한국의 경제성장률 전망은 2%에서 1.7%로 내렸다. 우리 경제를 둘러싼 상황이 올해 만만치 않음을 보여주는 숫자다. 특히 우리를 더욱 불안하게 하는 것은 2021년부터 시작된 높은 인플레이션이다. 국내 물가지수는 지난해 중반 6% 초반에서 올해 초 5% 초반으로 하락하기는 했지만 하락 속도가 시원스럽지 못하다. 이렇게 낮은 성장률과 높은 인플레이션이 함께 오는 것을 경제학에서는 ‘스태그플레이션(Stagflation)’이라고 한다. 보통 2가지 나쁜 상황은 같이 찾아오지 않는데 그럼에도 최악의 상황이 오면 기업과 가계는 고통을 받을 수밖에 없다. 2023년 우리나라의 경제 상황도 느슨한 형태의 스태그플레이션이라고 할 수 있겠다.

대공황을 성공의 발판으로 이용한 GM

과거에도 스태그플레이션이 발생한 적이 있다. 가장 심각했던 것은 1930년대 미국

의 대공황(Great Depression) 시기다. 대공황 기간 미국의 산업 생산량은 44% 감소했고 실업률은 25%에 이르렀다. 당시 약 10만 명의 미국인이 구소련으로 이민을 신청했다는 사실에서 그 심각성을 엿볼 수 있다. 여기서는 스태그플레이션의 2가지 요인인 경제성장률의 하락과 높은 인플레이션에도 불구하고 이 위기를 훌륭하게 대처한 기업의 사례를 살펴볼 예정이다.

우선 경제성장률 하락의 경우다. 경제성장률이 하락하는 기간, 이 어려움을 가장 잘 극복한 기업은 1930년대 대공황 시기를 이용해 자동차 산업 1위 자리에 등극한 미국의 제너럴모터스(GM)다. 경기가 하락하면 자동차 산업은 큰 타격을 받는다. 소득이 감소하면 소비자들은 가장 먼저 내구재(Durable Goods) 구입을 줄이는데 가장 비싼 내구재가 자동차이기 때문이다.

최근 우리나라 국내 소비가 하락세로 돌아선 원인도 국내 자동차 판매가 이전보다 증가하지 않은 데 원인이 있다. 1929년에서 1932년 사이 미국 자동차 판매는 무려 75% 감소한다. 모든 자동차 회사가 동시에 파산할 수 있는 상황이었다. 특히 가격이 높은 고급 자동차는 판매가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고 저가 자동차 판매는 소량 증가해 전체 매출의 80%를 차지하게 되었다. 그 결과 모든 자동차 회사의 생산 시설이 50% 이상 멈추는 위기의 상황을 맞이하게 되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GM은 수많은 다른 자동차 회사와 달리(당시 미국에는 50개 이

상의 자동차 회사가 있었다) 1930년대의 대공황 시절 한 해도 빠짐없이 순이익을 기록했다. 반면 GM의 경쟁사이자 규모가 더 컸던 포드는 매년 손실을 기록했다. 그렇다면 이러한 경기 하락기에도 GM이 경쟁 기업을 제치고 나갈 수 있었던 요인은 무엇일까?

결론부터 말하자면 GM 경영진은 불황에 대한 뛰어난 이해를 바탕으로 어려운 환경에 빨리 적응하는 현실적인 선택을 했다. 이는 결국 회사의 이익으로 귀결되었다. 불황 기간에는 이렇게 GM과 같이 빠르고, 과감하고, 포괄적인 행동이 중요하다.

먼저 GM은 생산 비용을 줄이기 위해 빠른 결정을 단행한다. 생산 비용이 줄어야 자동차 가격도 하락하고 소비자들의 수요가 늘어나기 때문이다. 단순한 원리지만 가장 중요한 회사 경영의 원리이기도 하다. 이들은 수많은 공장을 멈추게 하고 직원 수를 조정했으며, 고급차 생산을 줄였다. 또한 고급차 대신 시보레 같은 저가의 자동차 생산을 증가시켰다. 재고 조정을 위

해 팔리지 않는 고급차에 대해 70% 가격 세일을 단행하기도 했다. 이러한 과감한 전략은 평상시에는 상상할 수 없는 것들이지만 GM의 경영진은 주변의 비난에 개의치 않고 과감하게 밀고 나갔다.

다행히 GM의 경우 자동차부품 기업을 자회사로 거느리지 않고 있어 생산량 감소로 고정 비용을 줄이고 생산 감소의 위험을 부품 기업들에 전가시킬 수 있었다. 또한 재고를 줄이고 생산에서의 탄력성을 확보하기 위해 다양한 차종에 최대한 같은 엔진과 부품을 사용했다. 이 역시 평상시에는 브랜드별 판매 경쟁으로 인해 상상하지 못했던 선택이었다. 회사의 판매 채널도 과감히 수술했다. 판매 효율성을 강화하기 위해 그동안 고급 자동차와 중저가 자동차로 분리되어 있던 판매 딜러망을 중저가 딜러망 중심으로 합쳤다.

대공황 시기 GM의 성공 비결은 달라진 소비자들의 상황에 맞춰 빠르게 생산을 조정한 것이다. 생산 조정과 더불어 저가 자동차의 생산을 과감하게 늘리면서 동시에 시보레와 같은 저가 자동차의 마케팅과 홍보에 집중했다.

또한 주머니가 얇아진 소비자들이 자동차를 좀 더 쉽게 구매할 수 있도록 전보다 매력적인 자동차 구매 금융 상품을 선보였다. 특히 자동차 구매 금융 상품이 상당히 성공적이었는데 대공황 시기에는 은행이 자동차 구입을 위한 대출을 거의 막아 두었기 때문이다.

반면 경쟁사 포드는 GM과 반대의 길을

걷는다. 포드는 대기업의 자존심 때문에 빠른 생산 조정과 적극적인 마케팅을 하지 않으면서 대공황 시기에 매년 적자를 보았다. GM은 대공황 시기를 극복하면서 수십 년간 치열한 경쟁을 벌인 자동차 산업에서 다른 기업들을 훨씬 앞서는 기반을 마련하게 된 것이다.

인플레이션은 기업의 기회다

이번에는 인플레이션에 대처한 사례다. 해당 사례에서는 특정 기업을 밝히기 어려움을 이해 바란다. 일반적으로 높은 인플레이션이 발생하면 대부분의 기업이 어려운 상황에 놓인다고 생각하지만 사실 기회도 많아진다. 기업 입장에서 보면 2가지의 중요한 기회가 있다. 첫째는 노동 비용을 실질적으로 감소시킬 수 있고, 둘째는 시장 지배력을 강화할 수 있다. 역사적으로 살펴보면 노동자들의 임금과 물가는 거의 같은 수준으로 상승해 왔다. 노동자들은 물가 상승 폭인 인플레이션만큼 임금을 올려 달라고 요구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임금과 같이 인플레이션이 높은 시기에는 물가 상승이 임금 상승 폭을 앞서 가게 된다. 그렇다면 그 결과는 어떻게 될까? 노동자들의 실질임금이 하락하게 되는 것이다. 현실 경제에서 기업의 상황이 어려워져도 기업이 노동자의 임금을 삭감하기란 불가능에 가깝다. 하지만 높은 인플레이션은 이것을 가능하도록 한다.

둘째로 물가가 오르면 기업들은 생산품의 가격을 올려야 하는데 이것이 말처럼 쉽지

위기를 역이용한 GM
미국의 자동차 기업 GM은
대공황 시기 단호하고
빠른 결정으로 지속적인
판매 상승을 이뤄내며
자동차 업계 1위 자리로
올라선다.



않다. 경쟁사들이 가격을 어떻게 조절하는지 살펴봐야 하고 가격을 올리면 정부의 눈치를 봐야 하는 등 가격 상승에는 실질적인 제약이 많다. 이 경우 어떤 기업은 경쟁 기업보다 오랫동안 가격 상승을 참을 수 있다.

이는 결국 시장 지배력을 높여 인플레이션이 끝나면 크게 보상받을 수 있다. 물론 아무나 할 수 있는 전략이 아니다. 재무 상태가 튼튼하고 구매 조직이 탄탄한 기업만이 이러한 버티기 전략을 통해 시장 지배력을 높일 수 있고 인플레이션이 끝났을 때 큰 수익을 얻을 수 있다.

스태그플레이션은 누구에게나 괴롭고 어려운 상황이다. 하지만 다르게 생각하면 기업 경영에 있어 수십 년에 한 번 올까 말까 한 기회이기도 하다. 우리나라 모든 기업들의 건투를 기원한다. 

Advice

경제성장을 하락 속 GM의 생존 전략

① 생산 비용 절감

공장 생산 중단, 구조조정, 고급차 생산 중단 및 저가차 생산 증가

② 생산 탄력성 확보를 위한 부품의 통일

다양한 차종에 최대한 같은 엔진과 부품 사용

③ 판매 효율성 강화를 위한 판매 채널 재편

고급차와 중저가 자동차로 분리된 판매 딜러망을 중저가 딜러망 중심으로 재편

(주)코아시스템즈 초정밀 장비 분야 글로벌 강소기업 꿈꾸다

이광 코아시스템즈 회장은 회사 설립 이후 정밀 스테이지 분야에서 독심으로 20년 가까이 한 우물만 파 온 공장자동화 분야 전문가다. 오랜 경험과 기술 노하우를 바탕으로 제2의 도약을 도모하고 있는 이 회장을 만나 그가 제시하고 있는 청사진을 들어봤다.

코아시스템즈는 반도체 및 디스플레이용 검사기, 측정기 등에 사용되는 초정밀 스테이지를 전문적으로 생산·공급하며 다양한 정밀 스테이지 제품에 대한 경험과 노하우를 바탕으로 시장을 확대해 나가고 있다.

정밀 스테이지는 제품 생산, 가공, 검사 등 폭넓은 영역에서 제품의 위치를 결정하는 이송장치다. 코아시스템즈는 주로 반도체나 디스플레이 제조 분야에서 정밀 이송과 위치 제어를 요하는 작업, 세부적으로는 부품 측정, 커팅, 코팅, 검사 등 다양한 작업에 활용되는 대형 초정밀 스테이지를 생산한다. 특히 국내 잉크젯 장비 제작과 관련한 오랜 경험에 힘입어 정밀 스테이지

분야 경쟁에서 우위를 점하고 있다. 반도체 장비 제조사와 플랫패널디스플레이^{FPD} 장비 제조사, 리니어 모터 기반의 모션 시스템을 취급하는 장비 제조사 등에 제품을 공급하며 반도체, 디스플레이 및 인쇄회로기판^{PCB} 산업 성장에 기여하고 있다. 무엇보다 코아시스템즈의 초정밀 스테이지는 진동 제어에 효과적인 석정반(대리석)을 기반으로 한 비전 제어, 위치 제어를 담당함으로써 각종 검사기와 리페어 장비, 잉크젯 장비 등에 폭넓게 활용된다는 점이 큰 특징이다. 이러한 기술력을 바탕으로 반도체 제조 공정에 사용되는 나노급 스테이지 장비를 개발해 시장 진입을 노리고 있다.



이광
(주)코아시스템즈 회장



타의 추종을 불허하는 기술 경쟁력 코아시스템즈는 해외 의존도가 높았던 정밀 스테이지 장비의 국산화를 통해 기술 경쟁력을 입증했다.

정밀 스테이지의 기술 자립화를 이룬다

이광 코아시스템즈 회장은 공장자동화 산업 분야에서 일한 경력을 기반으로 해외 의존도가 높았던 정밀 스테이지 장비의 기술 자립화를 위해 2006년 마음이 맞는 이들과 함께 씨피에스코리아(코아시스템즈의 전신)를 설립했다.

“10여 년간 일했던 첫 직장이 공장자동화 분야의 핵심 부품을 만드는 곳이었어요. 산업용 로봇에 대한 관심이 많아 2004년에 관련 분야의 회사를 독자적으로 설립했고, 이후에 산업용 로봇과 메커니즘적으로 유사한 스테이지 사업을 같이 하면 시너지가 나지 않을까 싶어 마음이 맞는 사람들과 이 회사를 설립하게 되었죠.”

회사 설립 초기만 해도 이 회장은 개인적

인 지분 투자로만 참여했을 뿐 직접 경영에 참여하진 않았다. 하지만 2018년 경영권을 둘러싼 내부 문제가 심화되면서 이를 수습하기 위해 대주주 지분을 인수하고 경영을 챙기기에 이르렀다. 현재 코아시스템즈는 실질적 소유주로서 경영상 중요한 의사결정 권한을 행사하는 대주주 이 회장과 실질적 운영을 담당하고 있는 김경열 대표이사가 각자 역할을 분담해 기업 성과를 극대화하고 있다.

“회사 설립 초기에는 고가의 외국산 장비에 대한 의존도가 높았으나 점차 시장은 기술력과 원가 경쟁력을 요구하는 방향으로 변화하는 추세로 바뀌었습니다. 고객사에서 디스플레이의 해상도와 기술 발전을 거듭하면서 국산화된 초정밀 스테이

지를 원하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특히 디스플레이 제조 공정에서 레이저 리페어 장비와 비전 검사 장비의 수요가 증가함에 따라 스테이지 국산화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었습니다. 스테이지는 전체 장비를 구성하는 일부 부품에 해당하지만 장비에서 가장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는 하드웨어이기도 합니다. 안정적인 제품 개발과 표준화를 통해 기술과 가격 면에서 외국산에 뒤처지지 않고 그와 동일한 수준으로 공급할 수 있다면 공급 시기를 단축할 수 있고 유지보수도 수월하다는 점에서 스테이지 시장에 안정적으로 진입할 수 있겠다는 판단이 들었습니다.”

이 회장의 빠른 판단과 의사결정은 삼성디스플레이, LG디스플레이의 장비 기업과 협업을 통한 국산화 성공으로 이어졌고, 이로써 디스플레이 후공정 중 정밀도를 요하는 리페어 장비, 자동광학검사^{AOI} 장비 등에 대한 대규모 투자에 빠르게 대응할 수 있는 시장을 형성하는 데 기여했다.

사업 다각화로 제2의 성장 동력 확보

18년째 국내외 반도체 및 디스플레이 장비사에 정밀 스테이지를 공급하고 있는 코아시스템즈의 강점을 꼽는다면 동종 업계 대비 오랜 기간 한 분야를 파고들면서 축적한 기술력과 많은 경험치를 들 수 있다. 경험치가 많다는 것은 그만큼 다량의 실적과 데이터를 보유하고 있다는 의미다. 내부적으로 기업 경영과 생산 활동의 효율성을 향상시키기 위해 전사적자원관리

ERP와 제품데이터관리^{PDM} 시스템을 구축했다. 또한 문서 없이 업무가 속도감 있게 진행될 수 있도록 전자결재 시스템을 운영하는 등 전반적인 업무 프로세스를 전산화하는 데 공을 들였다. 이를 통해 제품 사양과 정밀도, 납기, 단가 등 여러 요소에서 고객의 니즈를 만족시키고 솔루션을 제시할 수 있는 역량을 더하게 되었다.

코아시스템즈가 내세우는 또 하나의 강점은 품질 관리다. 정밀도가 요구되는 만큼 정밀 스테이지는 주변의 온도와 먼지 등에

“외국 기술에 의존하던 디스플레이용 정밀 스테이지의 국산화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아지자 발 빠르게 주요 장비 기업과 협업을 추진해 국산화에 성공했고, 디스플레이 후공정 장비에 대한 대규모 투자에 빠르게 대응할 수 있는 시장을 형성하는 데 기여했습니다.”



엄격한 품질 관리 코아시스템즈는 정밀 스테이지의 품질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주변 환경 요인을 철저히 제어하고 관리함으로써 고객사의 신뢰도를 강화해 왔다.

매우 민감하다. 특히 스테이지의 베이스를 이루는 석정반의 경우 온도가 섭씨 1도만 변해도 수십 마이크론^{micron} 단위의 변형이 일어날 수 있다. 또한 미세한 먼지로 인해 스테이지를 이용해 만든 제품에 결함이 발생할 수 있다. 코아시스템즈는 클린룸과 제어 시스템을 갖추고 미세먼지를 비롯해 기온, 습도 등 제품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요소들을 철저히 관리하고 있다.

인재 관리에 이 회장이 특히 공을 들이는 부분이기도 하다. ‘인재는 곧 기업의 자산’이며 기업은 곧 사람이라는 신념에 따라 직원들이 꿈과 열정을 키워 갈 수 있는 기업을 만드는 것이 그의 목표다. 중소기업의 고질적인 인력난 속에서도 능력 있는 임직원을 최대한 뒷받침해줄 수 있는 환경을 만들기 위해 고군분투 중이다.

“열심히 일한 임직원에게는 그만큼의 대우가 뒤따라야 하며, 중소기업에서 중견기업으로 도약하기 위해서라도 인재 육성이 절실합니다. 이를 위해 성과제, 스톡옵션제 등을 도입해 열심히 일하는 임직원에게 더 많은 혜택을 주고 있으며, 더 나은 환경에서 일할 수 있도록 근무 환경 개선에도 투자를 아끼지 않고 있습니다.”

그동안 단일 제품군으로 사업을 영위해 온 코아시스템즈는 신규 사업 추진, 해외 진출 등 포트폴리오 다변화에도 적극 나서고 있다. 2021년부터 반도체용 레이저 소잉^{Sawing}·절단 장비 제조 사업에 뛰어 들었으며, 고유의 스테이지 기술과 제조 로봇 기술을 활용한 기술 내재화를 통해 완



코아시스템즈 보유 특허

스테이지 이송장치의
크로스빔 특허

스테이지 이송장치용
이송거더 특허

에어 베어링 및
이의 제어 방법 특허

잉크젯 기술을 이용한
광고판 장치 및 제어 방법

백라이트 유닛의
도광판 및 제조 방법

성도 높은 제품 생산에 심혈을 기울이고 있다. 올해부터 본격적으로 판매 수량이 증가할 것으로 기대되는 만큼 해외 수출 영업도 병행하고 있다. 또한 지난해부터 LG, SK 등 주요 대기업향 2차전지 물류 장비를 수주해 제작하고 있으며, 직교좌표 로봇 개발, 리니어 모터 개발, 반도체 공정 내 웨이퍼 이송장치인 ‘EFEM’ 생산 등 다각도로 신규 사업을 진행 중이다.

사업 규모가 커지면서 생산라인 증설에도 지속적으로 투자하고 있다. 국내 디스플레이 기업들이 설비투자가 활성화된 시점부터 고객사의 제조 수율 향상과 원가 절감을 실현하기 위해 대형 장비 생산과 제조 공간 확보가 절실해지자 2013년과 2018년 수원공장과 오산공장을 각각 증설했다. 2곳의 제조 공장을 통해 대면적 잉크젯 장비, 리페어 장비, 검사기 장비를 동시에 설계·납품하면서 2020년 회사 설립 이래 최고액인 540억 원의 매출을 달성하기에 이르렀다. 고객사로부터 최우수 협력업체로 선정되는 영예도 누렸다.

“그동안 스테이지 분야에서 일정 정도 성취를 이뤘고 주변에서 인정도 받아 왔지만 전 세계적인 디스플레이 시장 침체로 인해 투자가 위축되고 있는 추세입니다. 이에 따라 지난해부터 2차전지 물류 장비 사업을 추진하고 있고 다양한 시장에 대응하기 위한 각종 신규 사업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올해는 다양한 분야에서 수익 구조를 갖추는 변환점이 되리라 생각합니다.”

History

2006. 07
(주)씨피에스코리아 설립

2007. 11
기업부설연구소 설립

2008. 03
ISO 9001:2000 인증서 획득
ISO 14001:2004 인증서 획득

2009. 03
부품소재 전문 기업 선정

2010. 04
(주)코아시스템즈로 상호 변경

2010. 10
벤처기업 선정

2013. 07
수원산업단지(3단지) 사옥 이전

2013. 10
(주)모디스
(산업용 SSD 제조 전문 기업)
흡수합병

2018. 05
경기도 오산시 가장산업단지
제2공장 준공



STRENGTH

코아시스템즈의 4가지 핵심 경쟁력



엄격한 품질 관리

정밀도를 요구하는 장비 제조를 위해 클린룸과 제어 시스템을 갖추고 미세먼지를 비롯해 기온, 습도 등 제품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요소들을 철저히 관리하고 있다.



과감한 시설 투자와 도전정신

지속적으로 사업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적극적인 공장 증설과 시설 투자를 이어 가고 있으며, 제2의 성장 동력을 만들어 가기 위한 사업 다각화에 적극 나서고 있다.



다양한 인센티브제 통한 동기부여

‘인재는 곧 기업의 자산’이라는 신조로 직원들이 꿈과 열정을 키워 갈 수 있는 기업을 만들기 위해 다양한 인센티브제 도입과 근무 여건 개선 등을 통해 인재 관리에 힘쓰고 있다.



독보적 기술력과 경험

18년째 정밀 스테이지를 공급하고 있는 코아시스템즈는 동종 업계 대비 오랜 기간 한 분야에 파고들면서 다양한 실적과 데이터를 보유하고 있다.



창업
2006년



본사
경기도 수원시 권선구
수원산업단지(3단지)



주력 제품
초정밀 스테이지



인원
80명



2020년 매출액
543억 원



2021년 매출액
153억 원



2023년 매출 목표
650억 원



**MZ세대가 기획한
삼성전자의 에코 프렌즈**
지난 2월 삼성전자는 모바일 액세서리 기업
슬래시비슬래시와 팝업스토어를 열어
친환경 소재를 적용한 '삼성 에코 프렌즈'
액세서리를 선보였다.
글로벌 20대 직원들로 구성된 팀이
직접 기획해 MZ세대의 성향을
적극 반영할 수 있었다.

MZ세대가 생각하는 ESG 그리고 기업의 선택

전 세계적으로 MZ세대들이 새로운 소비 문화를 이끌고 있다. 한국의 MZ세대는 가성비와 제품의 기능을 꼼꼼하게 따지는 까다로운 소비자로 유명인데, 최근 ESG경영이 화두가 되면서 환경보호와 사회적 가치, 윤리경영 등에 대한 젊은 층의 관심이 커지고 있다.

2019년부터 대부분의 국가에서 MZ세대가 성인이 되면서 이들의 정치 및 경제적 영향력이 막대해지고 있다. 제이슨 도시와 더니스 빌라는 책 <제트코노미 Z-Conomy>에서 이들을 새로운 '글로벌 트렌드세터 Trendsetter'로 소개했다. 블룸버그는 MZ세대가 세계 인구의 63.5%를 차지하고 있음을 강조했고, 모건스탠리캐피털인터내셔널 MSCI의 연구 자료는 전 세계의 MZ세대 중 구체적인

로는 60%가 아시아에 속하며, 그다음은 아프리카(16%), 유럽(8%), 남미(8%)와 북미(7%), 오세아니아(1%) 순이라고 집계해 지역별 MZ세대의 시장 잠재력과 파워를 분석했다.

시장의 절반을 차지하는 MZ세대의 위세는 대표적으로 소비와 고용 측면에서 주목해볼 수 있는데, ESG 시대에 이 두 영역은 매우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다는 점에서 기업과 경영진, 투자자들의 관심이 필요하다. 왜냐하면 교육 수준이 향상되면서 세련도·성숙도 Sophistication가 높아진 MZ세대는 기업이 표방하는 가치를 보고 구매하는 성향을 보이는 동시에, 사회적으로 존경받는, 바른 기업에서 일하고 싶어 하는 성향이 높다는 점 때문이다.

한국의 MZ세대, 비싼 친환경 제품에 돈 쓸까?

MZ세대의 소비 문화에서도 손꼽히는 특징은 '가치소비'다. 유사한 개념으로 '미닝아웃 Meaning-out(신념을 표출시키는 소비 행위)', 가성비가 아닌 '가심비 價心費(가격 대비 마음의 만족을 추구하는 소비 행위)', 불매운동 Boycott이 아닌 '구매운동 Buycott' 혹은 더 나아가 적극적인 구매운동의 일환으로 착한 기업의 제품을 사줘서 '돈으로 혼내주자'는, 일명 '돈쫄(돈+혼쫄)'이라는 신조어까지 등장했다.

그렇다면 MZ세대의 실제 소비 패턴은 과연 제품과 서비스의 '친환경성'에 영향을 받고 있을까? 미국 컨설팅 기업 매킨지의 2020년 설문 결과 안타깝게도 한국의 청년들은 친환경 제품에 대한 민감도(친환경 제품에 더 비싼 값을 지불할 의사)가 설문 국가들 중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심지어 일본과 같은 선진국이 아닌 중국, 인도네시아, 태국보다도 낮다고 조사되었다. 해당 설문에는 따르면, 한국의 MZ세대가 보이는 친환경적 소비 성향은 X세대보다 약 4~5% 증가한 32%다. 세대별로 비교하면 친환경 소비에 대한 관심이 개선되긴 했다. 하지만 친환경 소비 의향이 50%를 웃도는 중국의 MZ세대보다도 낮다는 점에서 국가·지역적 비교로 보면 한국 청년들의 친환경 소비 의향은 상대적으로 낮은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이유에 대해 매킨지는 한국 청년들이 제품을 구매할 때 가장 많은 시간을 할

애하고 있다는 점을 조명했는데, 친환경적인 요소가 아닌 브랜드, 가격, 품질 등에 더 영향을 받는다는 것이다. 즉, 지속가능성에 대한 가치소비보다는 제품과 서비스 자체가 제공하는 효용 가치를 더 중요하게 평가한다는 의미다. 그렇다면 경기 불황 시기에는 친환경 요인이 제품 구매에 대한 한국 청년들의 엄격한 기준에 더욱더 영향을 주지 않을 것으로 풀이된다.

실제로 대학내일20대연구소에서 2022년 6월 500여 명의 MZ세대를 대상으로 진행한 국내 MZ세대의 ESG 인식조사 결과 또한 MZ세대가 강조하는 ESG경영에 대한 중요성이 실제 구매로 연결되는 데에는 미비한 것으로 나타났다. 설문에 따르면, ESG가 기업과 브랜드의 호감도에 긍정적인 영향을 준다고 응답한 숫자는 60%에 달했으나, 제품 구매에 실질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응답한 MZ세대는 절반인 30%에 불과해 약한 수준으로 나타났다. 구체적으로는 남성보다는 여성 소비자가 다소 높았고, M세대보다는 Z세대가 ESG 요소에 대한 추가 지불 성향이 높다고 집계되었다.

한국의 MZ세대가 생각하는 ESG경영의 핵심은 '일하고 싶은 기업'

그렇다면 한국의 청년들이 생각하는 기업의 이상적인 ESG경영은 무엇일까? 해외에서는 기후변화에 대한 심각성이 ESG경영 혹은 친환경 소비를 촉구하고 있다면, 국내에서는 환경보다는 워라밸과 공정성 등



이연우 법무법인(유한)
태평양 ESG랩 수석위원
서울과학기술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경영대학 교수를 역임했으며,
현재 법무법인(유한)
태평양에서 효과적인 ESG를
수행하도록 법무와 전략을
연계해 교육, 컨설팅, 자문을
담당하고 있다.

MZ세대를 겨냥한
친환경 브랜드

롯데홈쇼핑은 MZ세대 직원들로만 구성된 'MZ PB 개발팀'을 신설해 리빙 제품 등 지구를 행복하게 하는 다양한 자체 상품을 개발 중이다.



국민이 선택한 ESG 잘하는 기업

	착한 기업	사회에 필요한 기업	투자하고 싶은 기업
1위	근로 재해를 예방하는 기업 S	일-삶의 균형을 높이는 기업 S	일-삶의 균형을 높이는 기업 S
2위	일-삶의 균형을 높이는 기업 S	근로 재해를 예방하는 기업 S	협력사와 동반성장을 하는 기업 S
3위	협력사와 동반성장을 하는 기업 S	협력사와 동반성장을 하는 기업 S	성과 평가 및 보상을 합리적으로 하는 기업 G
4위	온실가스 배출을 줄이는 기업 E	온실가스 배출을 줄이는 기업 E	근로 재해를 예방하는 기업 S
5위	폐기물 배출을 줄이는 기업 E	지역사회에 기여하는 기업 S	지역사회에 기여하는 기업 S

E 환경 **S** 사회 **G** 지배구조

이 압도적으로 높았다. 이 설문은 MZ세대에 국한된 것은 아니지만, 전반적으로 우리나라 국민들이 일과 삶의 균형을 포함해 기업의 고용 철학 및 운영 실태를 더 중요하게 인식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MZ세대에게 워라밸과 공정성은 더 상위 이슈로 여겨질 소지가 높으므로 이 연구를 토대로 MZ세대의 관심과 고려사항을 가늠해볼 수 있다.

채용 플랫폼인 잡코리아와 알바몬이 2022년 1월 MZ세대 구직자 1,200여 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ESG경영 기업 취업선호도' 조사에서도 기업의 ESG경영 여부가 MZ세대 구직자들의 입사 지원율을 높이고 있음을 확인했다고 한다. 좋은 인재 확보와 관리는 기업의 지속 가능한 성장을 위한 필수 동력이다. 따라서 좋은 인재를 확보하기 위한 ESG경영은 친환경, 사회, 윤리 그리고 지배구조 전반에 대한 개선과 근본적인 철학에서부터 시작되어야 한다. 2008년, 빌 게이츠는 세계경제포럼 WEF에서 '창조적 자본주의'를 주제로 한 연설을 통해 좋은 기업이 좋은 직원을 유치할 수 있음을 강조한 바 있는데, ESG경영이 장기적으로는 친환경 및 가치소비자 확보에 도움이 된다면, 지금 즉시 도움이 되는 부분은 바로 훌륭한 인재 확보가 견인하는 경쟁력 제고다.

소비자와 인재,

ESG경영으로 경쟁력을 높이는 비결

2023년 2월 중순부터 약 열흘간, 삼성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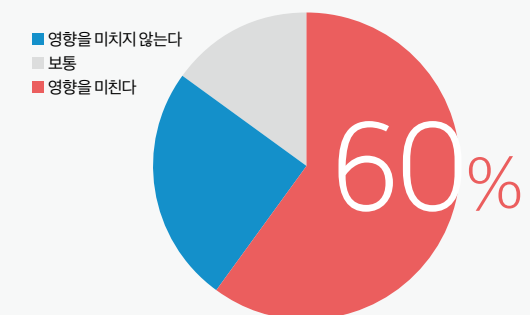
자는 모바일 액세서리 기업인 슬래시비슬래시 **Slash B Slash**와 함께 여의도 더현대 서울에 팝업스토어를 열어 친환경 소재를 적용한 '삼성 에코 프렌즈 **Eco-friends**' 액세서리를 선보였다. 더현대 서울 팝업스토어는 케이스와 스트랩 등 다양한 모바일 액세서리를 소비자가 직접 살펴보고 최신 스마트폰 '갤럭시 S23' 시리즈, 포터블 스크린 '더 프리스타일' 등을 체험할 수 있는 공간으로 기획되었는데, 삼성전자는 MZ세대 취향을 반영한 친환경 소재의 액세서리인 에코 프렌즈 12개 에디션을 선보여 국내외의 주목을 끌었다.

에코 프렌즈는 40% 이상의 재활용 소재 **Post Consumer Material-PCM**를 포함한 재생 플라스틱, 비건 레더 등 친환경 소재를 적용해 '지속 가능한 일상 **Everyday Sustainability**'을 추구하는 액세서리 라인으로 출시해 훌륭한 친환경 사례로 평가받았다. 특별한 점은 이번 론칭의 배경에 글로벌 20대 직원들로 구성된 삼성전자 퓨처제네레이션랩 **Future Generation Lab**이 있다는 것이다. 이들이 직접 가치소비를 추구하고 액세서리를 통해 개인 취향을 표현하는 MZ세대의 성향을 적극적으로 반영했기에 프로젝트가 성공할 수 있었다. ESG경영으로 친환경 소비와 인재, 두 마리 토끼를 동시에 잡은 사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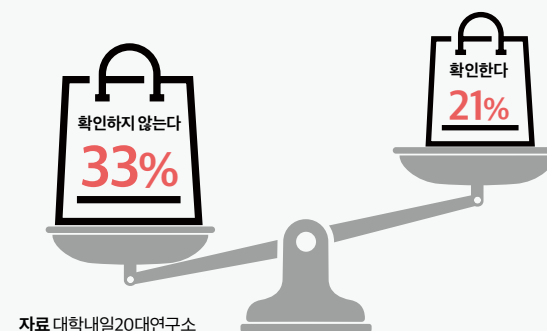
기후변화 대응 및 새로운 사회적 가치인 ESG경영이 기업들에 획기적인 전환 정신을 요구하고 있다. 기업은 현재처럼 기업 경영을 유지할 경우 발생할 리스크를 인지

2022 MZ세대 투자 인식 보고서

ESG경영이 기업 이미지 인식 및 브랜드 호감도에 영향을 미치는 정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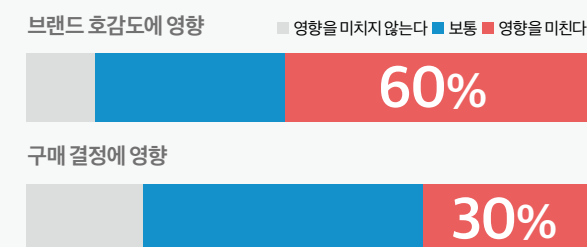


제품 구매 시 ESG에 도움이 되는지 확인한다



자료: 대학내일20대연구소

ESG가 제품 구매 결정에 영향을 미친다



함과 동시에 적극적으로 기회 요인을 발굴하고 개발할 것을 권고받고 있으며, 국내외 선도 기업을 통해 빠르게 실천되고 있다. MZ세대의 새로운 가치소비 성향과 일하는 방식을 두루 공략해 기후변화 시대의 성공적인 혁신 과제로 연결하는 국내 기업들이 더 많이 생겨나길 바란다.



영국인의 반 이상, “브렉시트 후회한다”

40년 만에 가장 빠른 물가 상승 속도를 기록하고 있는 영국은 현재 근로자 50만 명이 파업에 나섰다. 브렉시트(Brexit) (영국의 유럽연합 EU 탈퇴) 이후 영국의 무역 난이도가 상승하고, 많은 글로벌 기업이 EU 회원국인 프랑스나 독일로 이동했다. 여기에 이민자가 급감하면서 단순노동 분야의 노동자가 33만 명 감소해 노동력 부족에 시달리는 등 매우 어려운 상황에 처했다. 2016년 51.9%의 국민 투표로 브렉시트를 결정한 영국은 현재 국민의 반 이상인 56%가 브렉시트를 ‘잘못된 결정’이라 평가하고 있다.

영국



2035년부터 내연기관 신차 판매금지 확정

유럽의회가 2035년부터 EU에서 휘발유 등 내연기관 승용차·승합차 신차 판매를 금지하는 법안을 통과시켰다. 미국 일간지 월스트리트저널(WSJ)에 따르면 유럽의회는 지난해 EU 회원국들이 승인한 탄소배출 규제 합의를 담은 법안을 승인했다. 이에 따라 자동차 제조 기업들은 2030년까지 새로 나오는 승용차와 승합차의 탄소배출량을 2021년보다 각각 55%와 50% 줄여야 한다. 또한 2035년까지는 탄소배출이 없는 신차만 내놓아야 한다.

EU



화해모드 돌입한 호주와 중국

무역과 유학생 교류 등으로 끈끈한 관계를 유지해 오던 중국과 호주는 보수 성향인 스콧 모리슨 전 호주 총리 시절부터 심각한 갈등을 겪었다. 하지만 지난해 5월 호주 노동당 정부가 출범하면서 양국 관계도 달라지고 있다. 지난해 11월에는 인도네시아 발리에서 열린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에서 앤서니 앨버니지 호주 총리와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만나 6년 만에 정상회담을 열었다. 그 결과 2월 9일 2년여 만에 호주산 석탄이 중국에 수출되는 등 화해 분위기가 형성되고 있다.

호주

중국



한·중 40여 일 만에 쌍방 정상화

주한 중국대사관 및 총영사관이 2월 18일부터 한국 국민을 대상으로 중국 단기 비자 발급을 재개했다. 또 중국 이민관리국은 한국이 중국 국민의 한국행 단기 비자 발급을 재개한 것을 고려해 18일부터 한국 국민에 대해 ‘도착 비자’ 발급을 재개하고, 중국 내 경유지에서 72시간 또는 144시간 동안 비자 없이 체류할 수 있게 하는 정책을 복구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양국 간 비자 발급은 지난 1월 2일 한국의 대중국 제한 조치 시행 이후 40여 일 만에 정상화되었다.

일본



일본, 방사능 오염수 방류 결정

일본 정부가 빠르면 올 상반기에 후쿠시마 제1원자력발전소에 쌓아 뒀던 오염수를 방류하겠다고 예고했다. 지금까지 쌓인 132만 톤에 더해 현재 하루에 140만 톤씩 나오는 오염물질을 2050년까지 바다에 버릴 계획이다. 일본은 오염수를 40분의 1로 희석하고, 성분을 분석해 위험물질을 걸러내겠다고 했다. 그러나 연구 결과에 따르면 가장 위험한 성분인 삼중수소가 4~5년 뒤부터 우리나라 바다에 본격적으로 들어올 것이라고 예측되어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수산 업계가 입을 피해에 대비하고 있다.

지도로 보는 글로벌 마켓



세계화의 미래

신자유주의 기반의 초세계화는 불평등이 확대되면서 탈세계화로 이어졌다. 세계화와 탈세계화의 중간에서 갈 길을 잃은 지금 세계는 '재세계화'를 고민 중이다. 앞으로 세계는 어떻게 통합되고 분열될 것인가?



이승주
중앙대 정치국제학과 교수
싱가포르국립대와 일본 게이오대 방문교수였으며, 현재 동아시아연구원(EAI) 무역·기술·변환센터 소장, 외교부 경제안보외교 자문위원회 위원장을 맡고 있다.

다보스포럼은 전통적으로 세계화의 전도사 역할을 해 왔다. 주요국 정부의 수반, 기업가, 학자 및 언론인들이 모여 그간의 세계화 성과를 칭송하고 앞으로 세계화를 한 단계 더 업그레이드시키기 위한 실천 과제를 제시하는 이정표로서 기능했다. 그러나 코로나19의 세계적 확산은 다보스포럼의 역할을 일거에 축소시켰다. 코로나19 확산 우려로 인해 2020년 이후 2년간 비대면으로 개최된 데다, 2022년 겨우 대면으로 전환한 회의조차 5월로 연기해야 했다. 2023년 1월에 개최된 이번 회의는 세계화의 전도사로서 다보스포럼이 새로운 방향의 세계화 가능성을 탐색한 자리였다고 할 수 있다. 다보스포럼이 '파편화된 세계 속의 협력' *Cooperation in a Fragmented World*에 주목한 이유다.

초세계화

1990년대부터 21세기 초에 이르는 기간은

세계화의 시대였다. 정보기술^{IT} 혁명과 4차 산업혁명은 국가 간 거리와 거래 비용을 대폭 낮춤으로써 세계화를 촉진하는 첨병 역할을 했다. 개인은 지구 어디에서든 상시적으로, 초국적으로 소통하고 거래할 수 있게 되었을 뿐 아니라, 기업은 가치사슬의 지리적 범위를 전 지구적으로 넓혀 놓았다. 전자상거래의 증가와 플랫폼 경제의 등장은 세계화 속도를 더욱 높였고, 고도의 효율성을 자랑하는 지구적 가치사슬은 이를 뒷받침하는 생산 기반이 되었다. 토머스 프리드먼^{Thomas Friedman}의 말처럼 '세계가 평평해진' 시대가 도래한 것처럼 보였다. 이러한 세계화는 초세계화 *Hyper-globalization*로 불리기도 한다.

신자유주의 기반의 세계화는 과거의 세계화와 비교할 때 지리적 범위가 확대된 것뿐 아니라, 질적으로도 커다란 차이가 있었다. 과거의 세계화가 주로 관세 및 비관세 장벽과 같이 국가 사이에 무역을 직접적으로 저해하는 '국경 장벽' *At-The-Border Barriers*을 완화하는 데 초점을 맞추었다면, 신자유주의 기반의 세계화는 규제와 규범과 같이 개별 국가들 내부에서 무역에 실질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국경 내 장벽' *Behind The Border Barriers*을 낮추는 데 초점을 맞추었다. 2001년 세계무역기구^{WTO}가 의욕적으로 출범시킨 도하 개발 라운드 *Doha Development Round*에서 이러한 이슈에 대한 타결이 지체되자, 미국을 포함한 선진국들은 지체 없이 자유무역협정^{FTA}이라는 새로운 수단을 통해 목표를 실현하고자 했다.



불확실성의 증폭과 탈세계화

초세계화는 국가와 개인 모두에게 기회와 도전이었다. 다만, 도전의 증가는 2010년대 초세계화에 대한 도전을 아래에서부터 응축시키는 힘으로 작용했다. 세계화에 대한 도전이 과거에도 없었던 것은 아니나, 2010년대 도전은 미국과 선진국에서 비롯되었다는 데 근본적 차이가 있다. 세계화를 선도하고 세계질서를 설계·운영하던 선진국에서도 초세계화의 피해를 경험했던 것이다. 자본이 더 좋은 투자처를 찾아 해외로 나가서 제조업의 공동화를 초래한다는 우려가 발생하고, 노동 이동성의 증가는 개발도상국 근로자의 지속적인 유입을 가져와 자신들의 일자리를 빼앗는다는 박탈감이 팽배해졌다. 그 결과는 잘 알려져 있듯이, 미국의 '트럼프주의' *Trumpism*와 영국의 '브렉시트'였다.

세계화는 경제적 불평등의 확대를 초래했다. 주요국들에서 소득 불평등뿐 아니라 자산 불평등이 심화되었다. 경제적 불평등은 사회적 갈등과 분열, 더 나아가 정치적 양극화로 이어졌다. 미국과 영국의 사례는 세계화로 인해 촉발된 일련의 사태가 경제적·사회적·정치적 문제로 전환되는 과

정을 극명하게 보여주었다. 민주주의의 문제 해결 능력이 저하되었다는 우려가 커짐에 따라, 새로운 지도자를 갈구하는 대중이 늘어난 것이다. 탈세계화 *De-globalization*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증폭되기 시작했다.

지정학과 재세계화

일련의 사태를 경험한 이 시점에서 초세계화가 더 이상 지속 가능하지 않다는 점이 명확해졌다. 그렇다고 해서 그동안의 세계화를 원점으로 되돌리는 탈세계화가 대안이 될 수도 없다. 그렇다면 남은 대안은 재세계화 *Re-globalization*다. 초세계화의 문제점을 개선한 새로운 방향의 세계화를 지향하는 것이다. 현재와 같은 초연결성이 초래하는 리스크가 크기 때문에 이를 관리할 수 있는 거버넌스를 수립해야 한다. 다보스포럼에서 '복합적이고 상호 연결된 도전' *Complex and Interconnected Challenges*이 분열을 초래한다고 지적한 것은 이러한 맥락이다. 결국 대안은 심층 통합을 지향한 초세계화의 속도와 범위를 다소 조정하는 한편, 국내 차원에서 사회적 안전망을 강화해 세계화의 압력을 상시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이다.

세계화를 바라보는 여러 개의 시선 지난 1월 열린 제53회 다보스포럼을 관통한 주제는 '재세계화'였다. 하지만 탈세계화의 분위기 속에서 '세계화'를 바라보는 시선은 국가와 기업마다 모두 다르다.

세계화에서 탈세계화까지

- 1939~1945년 제2차 세계 대전
- 1947~1991년 냉전
- 1991년 구소련 붕괴
- 1995년 WTO 설립

세계화 시작

-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 2016년 영국 브렉시트 확정
- 2019~2022년 코로나19 팬데믹

세계화에서 커진 상호 의존성 리스크 부각

탈세계화 시작

대한민국 중소기업 국가대표 공동 브랜드 '브랜드K'

우리나라에는 우수한 기술력과 제품력을 보유하고 있음에도 독자 브랜드 파워가 약해 해외에서 저평가되고 있는 중소기업이 많다. '브랜드K'는 이러한 중소기업의 해외 진출을 지원하기 위해 출범한 대한민국 중소기업 국가대표 공동 브랜드다.

우수 중소기업 제품에 대한민국의 신뢰를 더하다

최근 대한민국의 선진국 대열 합류와 한류의 전 세계적 유행이 실현되면서 우리나라에 대한 전 세계의 관심과 신뢰가 그 어느 때보다 높다. 브랜드K는 이처럼 향상된 국가 브랜드 파워를 제품력은 우수하지만 독자적 브랜드 파워가 약해 저평가되고 있는 우수 중소기업 제품과 연결시킴으로써 글로벌 진출을 직간접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탄생한 대한민국 중소기업 국가대표 공동 브랜드다. 2019년 출범 이래 지금까지 총 323개 중소기업이 선정되었으며, 2023년 3월 현재 브랜드K에 선정된 중소기업은 287개사에 이른다.

브랜드K 선정 중소기업에는 다양한 수출 지원이 이뤄진다. 먼저 브랜드K 로고를 2년 동안 사용할 수 있는 권한이 주어지며, 이후 별도 절차를 통해 2년 단위로 사용 연장이 가능하다. 또한 한국무역협회^{KITA} 연계 브랜드K 전용 전시·수출 상담회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가 부여되며, K-박람회, K-콘^{CON}, 브랜드 엑스포 등 한류와 관련된 해외 유명 전시회에 브랜드K 선정 기업으로 참가를 지원할 예정이다. 서울 코엑스와 베트남 호찌민에 마련된 브랜드K 플래그십 스토어를 통해 제품을 전시 및 홍보할 수 있으며, 글로벌 쇼핑몰 입점을 통한 기업과 고객 간 거래^{B2C} 홍보 및 고비즈코리아 등을 활용한 기업 간 거래^{B2B} 홍보도 지원한다.

한편 브랜드K 선정 중소기업이 중소벤처기업부 주관 수출지원사업에 참여할 경우 규정에 따른 우대사항을 누릴 수 있으며, 2023년 브랜드K 기업에 선정되면 수출바우처사업에 자동 선정되어 바우처 지원을 받을 수 있는 등 중소기업의 해외 판로 개척을 위한 다양한 자금 지원도 받을 수 있다.



**2023년 브랜드K 기업
모집 공고**



신청 기간
2023년 2월 15일(수)~
4월 6일(목)



신청 방법
판판대로 홈페이지
fanfandaero.kr에서 신청·접수



문의
판판대로 홈페이지
fanfandaero.kr

중소기업유통센터 판로지원팀
02-6678-9313~5

01

브랜드K 로고 적극 활용하기

수출을 위해 해외 바이어를 만나다 보면, 국가 인증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다. 이때 대한민국 정부가 인정하는 우수 중소기업 대표 브랜드인 '브랜드K'를 활용하면 판로 개척에 도움이 될 수 있다. 그러니 선정 후 브랜드K를 제품 홍보 및 마케팅에 최대한 많이 활용해보자.

02

브랜드K 전시·수출 상담회 참여하기

브랜드K 선정 기업이 되면, 브랜드K 기업 전용 전시·수출 상담회에 참여할 수 있다. 해외 바이어와 직접 만나 기업과 제품을 두루 알릴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마련되는 것. 전시·수출 상담회는 해당 시기에 브랜드K 기업을 대상으로 별도로 공지하니, 적극적으로 참가해 해외 판로를 한층 다각적으로 구축해보자.

GBRAND

K

중소기업유통센터가 알려주는
브랜드K 활용 노하우



03

중소벤처기업부 수출지원사업 활용하기

브랜드K 기업에는 중기부 수출지원사업 참여 시 우대사항이 있다. 수출바우처사업, 온라인 수출사업 등 수출지원사업에 참가를 신청할 때 일반 중소기업보다 유리한 고지를 점할 수 있는 것. 특히 해외 마케팅 서비스를 바우처 형태로 제공하는 수출바우처사업은 매우 유용하니 꼭 참여해 수출 인프라를 탄탄히 다져보자.



브랜드K를 활용한 성공 사례

글로벌 이커머스로 판로 확장한 향기 전문 기업 코코도르(株)

브랜드K 2기에 선정된 향기 전문 기업 코코도르는 전체 수출용 제품 패키지에 브랜드K 상표를 확대 적용, 대한민국이 인정한 제품임을 널리 알렸다. 덕분에 코코도르는 아마존, T-몰^{mall} 등 글로벌 이커머스 플랫폼을 중심으로 수출처를 대폭 확대할 수 있었다.

브랜드K로 호주와 태국 수출길 열다 (株)이지텍

글로벌 온라인 유통 전문 기업 이지텍은 건강 간식 브랜드 '자연공유'를 통해 다양한 간식을 선보이며 소비자들의 사랑을 받고 있다. 이지텍은 브랜드K 3기 기업으로 선정된 후 브랜드K 기업 전용 수출상담회에 적극 참여했다. 그 결과 호주와 태국으로 새로운 수출길을 열 수 있었다.



5,127번의 도전이 만든 혁신 제임스 다이슨

다이슨(Dyson)의 주력 제품인 진공청소기는 1대가격만 무려 100만 원을 넘는다. 그럼에도 출시되자마자 영국에서 가장 많이 팔린 청소기에 이름을 올렸고 우리나라에서도 큰 인기몰이에 성공했다. '필터 없는 청소기'라는 아이디어는 어디에서 출발했으며, 또 극심한 자금 부족 상황을 타개한 방법은 무엇이었는지 다이슨의 경영 방식을 알아본다.



강준형

도서출판 경제21C 대표

경제 분야 출판사를 운영하며, 관련 강의, 집필 등의 활동을 하고 있다. <딱 이만큼의 경제학>, <알기 쉽게 풀어 쓴 경제학 시리즈> 등을 출간했다.

다이슨 창업주 제임스 다이슨(James Dyson)은 1947년생이다. 영국 왕립예술대학(RCA)에서 산업디자인을 전공했으며, 졸업 후에는 엔지니어링 회사를 다녔다. 이후 창업에 나선 그는 플라스틱 공에 물을 채워 바퀴로 사용하는 정원용 수레를 개발한다. 꽤 성공을 거두는 듯 보였지만, 한 미국 기업이 유사 제품을 내놓으면서 실적이 크게 악화된다.

이때 그가 내놓은 대안이 필터 없는 청소기를 만들어보자는 것이었다. 청소기 흡입력이 떨어져 이를 분해해보니 필터에 남아 있는 작은 먼지들이 발견되었다. 그는 이 문제를 해결하면 더 나은 청소기를 개발할 수 있을 것이라고 판단했다. 하지만 그의 제안에 사람들은 별 관심을 갖지 않았고, 결국 그는 회사를 나와 혼자 힘으로 제품 개발에 나선다.

전 재산을 투자한 결과 간신히 시제품을 만드는 데 성공했으나 유럽에서는 마땅한 투자사를 찾지 못했다. 다행히 일본 기업과 제휴해 개당 10%의 로열티를 받는 조건으로 특허를 팔고 자금을 확보하기에 이른다. 다시 기술 개발에 매진한 그는 1993년 마침내 다이슨을 설립한다. 새롭게 출시된 청소기는 경쟁 제품보다 비싼 가격이 있음에도 높은 판매량을 보였다.

2009년, 다이슨은 날개 없는 선풍기를 선보인다. '다이슨의 성공은 청소기에 그칠 것'이라던 시장의 예상을 완벽하게 벗어나는 사건이었다. 미국 시사주간지 타임은 가장 혁신적인 제품 중 하나로 날개 없는 선풍기를 선정했다. 비행기 제트 엔진의 원리를 적용한 이 선풍기의 출시로, 날개가 회전하며 바람을 일으키는 선풍기의 모습은 바뀌게 되었다.

메모는 버려라, 대화하라

다이슨의 성공은 단연 무한한 도전정신에 있다. 하지만 기업 경영의 현실적 입장에서 볼 때 도전이란 곧 비용을 의미한다. 불과

1년 후를 장담하기 어려울 정도로 치열한 시장 환경에서 다이슨처럼 수백 명의 개발자가 2~3년의 일정을 잡는다는 건 어불성설이다. 그럼에도 우리 기업에 시사하는 바가 있어 몇 가지 정리해보고자 한다.

첫째, 대화다. 이메일과 메시지는 업무상 꼭 필요한 수단이지만 그 이상의 문제 해결을 가져다주진 못한다. 상급자와 어떻게 마주 보고 편히 이야기하겠느냐고 반문할 수 있겠지만, 이는 그 기업의 문화가 건강하지 못하다는 증거다. 여기서 최고경영자 CEO의 역할이 중요하다. 모두가 참여하고 또 존중받는다는 느낌을 주는 환경을 만들어야 한다. 불필요하거나 쓸데없다고 생각한 말 중에서 창의적인 아이디어가 나온다는 점을 명심하자.

둘째, 꾸준한 개선이다. 이미 알려져 있듯이 청소기와 선풍기는 개발된 지 100년이 넘는 제품으로 혁신과는 거리가 멀다. 용도와 특징이 고정되어 더는 바꿀 게 없어 보이는 제품(이른바 소형가전)에서 다이슨은 소비자가 주목할 만한 개선을 이뤄냈다. 바로 기능, 특히 익숙하지만 불편했던 기능에 주목한 결과다. 반드시 있어야 한다고 생각했던 청소기의 필터와 선풍기의 날개를 과감히 제거해 편의성을 높였고 디자인도 살렸다. 현재 다이슨의 연매출은 5조 원대에 이른다.

셋째, 연구와 디자인, 개발의 통합이다. 다이슨에 입사한 직원이 가장 먼저 하는 일은 청소기를 분해하고 다시 조립하는 것이다. 디자이너건 엔지니어건 장벽은 없다.

이 과정에서 청소기의 작동 원리를 파악하고 나름의 생각과 깨우침을 얻는다. 다시 출근한 이들은 한 공간에 모여 업무에 임한다. 바로 RDD(Research·Design·Development) 센터다. '디자인도 좋은 기능을 위한 노력'이라는 말처럼 다이슨은 융합의 관점에서 제품을 개발하고 있다.

지적재산, 지키는 일도 중요하다

창업주 제임스 다이슨은 과거 정원용 수레를 개발했다가 디자인을 침해당한 경험이 있다. 청소기를 출시한 당시에도 업계 일인자였던 후버사가 유사 제품을 내놓아 법정 싸움으로 번졌다. 마침내 승리했으나, 만약 그가 특허 등 지적재산(IP) 관리에 소홀했다면 제아무리 뛰어난 아이디어라 한들 법으로 보호받기는 어려웠을 것이다.

지적재산 보호는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는다. 특히 중소기업은 성격상 특허 분쟁에 필요한 인력과 예산 모두 절대적으로 부족하며, 기술 침해 사례도 끊이지 않고 있다.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겠지만 분쟁 시 대응책을 미리 준비해 두는 것도 매우 중요하다. 📌

“**좌절은 우리의 발명 정신을 이끄는 원동력이다.**
다이슨은 기술을 통해 문제를 해결한다.”

제임스 다이슨

숫자로 보는 다이슨

 **7,500건**
출원 특허 건수

 **90%**
해외 매출 비중

 **30%**
매출 대비 연구·개발 R&D 투자 비중

 **500여개**
발명 제품 수
자료 다이슨

대전 3기

이비오(주)

윤진원 대표

주문자와 생산자 연결하는
제조 플랫폼

이비오는 제조 플랫폼을 통해 컴퓨터수치 제어(CNC) 절삭가공 영역의 클라우드 팩토리를 실현하고 있다. 고객들은 이비오의 플랫폼을 통해 혁신적인 워크플로(Workflow)를 경험할 수 있다.



Questions

01. 이비오에 대해 소개해 달라.
02. 이비오의 가공 플랫폼 개발 배경은 무엇인가?
03. 이비오의 핵심 기술은 무엇인가?
04. 이비오의 성장 가능성을 어떻게 보는가?

Answers

01. 제조 패러다임이 다품종 소량 생산으로 전환됨에 따라 전통적인 제조 시장에 변화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특히 외주 가공 시 주문자와 생산자의 연결 문제에 주목해 제조 플랫폼을 통해 주문자와 생산자를 유기적으로 연결하고 있다.

02. 우리는 주문자가 원하는 정확한 '실시간 견적'을 제공할 뿐 아니라 생산자의 '지식노동'까지 줄여주는 양방향 솔루션을 제공할 수 있는 제조 플랫폼을 지향한다. 아직 절삭가공 영역에서 양방향 솔루션을 제공하는 제조 플랫폼이 없어 이러한 모델이 제조 시장에서 작동 가능한지 검증이 필요했다. 온라인 CNC 라우터 가공 플랫폼 '위드로우(wedraw)'는 이비오가 지향하는 절삭가공 제조 플랫폼 시장을 검증하기 위한 일종의 테스트베드로 볼 수 있다.

03. 국내 절삭가공 시장은 4조 원 규모로 그중 자사 플랫폼을 사용하게 될 외주 가공 이용자 비중은 15%(6,000억) 정도다. 외주 가공을 할 때 주문자 입장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가공 견적인데, 우리는 디지털 트윈을 통해 학습한 인공지능(AI)으로 정확한 가공 견적을 산출하는 기술을 보유하고 있다. 또한 생산자에게는 가공에 필요한 가공 코드와 공정 설계를 자동으로 생성해 제공함으로써 도면 검토, 가공코드 작성, 공정 설계 등 반복적인 지식노동을 90% 이상 절감시켜줄 수 있는 공정 설계 자동화 기술을 보유하고 있다.

04. 외주 가공이 많아지고 생산해야 하는 제품의 종류가 늘어나는 상황에서 제조 과정의 '지식노동' 절감은 중요한 문제로 부각될 것이다. 이비오는 절삭가공 영역에서 이러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핵심 기술을 보유하고 있어 전환되는 외주 가공 시장을 선도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한다.

우리는 디지털 트윈을 통해
학습한 AI로
정확한 가공 견적을
산출하는 기술을 보유하고
있다.

IBK창공(創工)은 '창공(創工)을 통해 창공(創工)으로 비상하라'는 의미를 가진 '창업(創業)공장(工廠)'의 줄임말로, IBK기업은행이 창업 기업을 지원하기 위한 공간 및 프로그램을 지칭한다.

구로 8기

헤드리스(주)

남궁지환 대표

브랜드사의
D2C 확장을 위한 솔루션

헤드리스는 중소 브랜드, 소상공인, 스타트업을 위한 자사몰 중심의 온라인 직접 판매(D2C) 데이터 활용 솔루션을 제공해 대형 온라인 쇼핑몰에 종속된 중소 브랜드의 데이터 주권을 찾아준다.



Questions

01. 헤드리스에 대해 소개해 달라.
02. 헤드리스 커머스의 개발 배경은 무엇인가?
03. 헤드리스의 성장 가능성을 어떻게 보는가?
04. 앞으로의 계획은 무엇인가?

브랜드사의 데이터 주권을
확보함으로써
기업이 지속 가능한 비즈니스를
할 수 있도록 솔루션을
제공하고 있다.

***옴니채널** 소비자가 온라인, 오프라인, 모바일 등 다양한 경로를 넘나들며 상품을 검색하고 구매할 수 있도록 한 서비스.

Answers

01. 브랜드사의 제품을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해 D2C 자사몰을 기반으로 외부 채널 판매, 데이터 파이프라인 구축 등을 돕고 있다. 이를 통해 브랜드사의 데이터 주권을 확보함으로써 기업이 지속 가능한 비즈니스를 할 수 있도록 솔루션을 제공하고 있다.

02. 브랜드사들이 제품을 만들어 판매할 때 다양한 유통물을 이용하는데 플랫폼의 수수료가 점점 높아지고 있다. 이에 기업들의 수익성을 높이고 데이터 확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최근 D2C 자사몰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고 있다. 하지만 자사몰을 만들어도 기술적 역량 없이는 여러 채널과의 데이터 파이프라인 구축, 광고 자동화, 검색엔진 최적화(SEO), 고객관계관리(CRM) 등 다양한 문제가 산재해 있어 운영하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 부분을 해결하고자 헤드리스 솔루션을 만들게 되었다.

03. 미국에서는 이미 2019년에 나이키가 아마존을 나와 D2C를 강화하고 있으며, 이후 반스, 랄프로렌, 롤렉스, 버켄스탁, 아디다스 등도 아마존을 떠나면서 D2C 시장이 점점 커지고 있다. D2C의 핵심은 고객으로부터 직접 제공받는 퍼스트파티(First-party) 데이터를 확보해 브랜드사의 수익성을 증대시키고 데이터 주권을 지키는 것이다. 이 상황에서 대기업들은 브랜드 파워, 마케팅 역량, 정보기술(IT) 역량을 보유해 옴니채널*을 구축하고 있으나, 역량이 부족한 소상공인, 중소기업은 이에 대응하지 못하면서 D2C 기반 고객 경험의 격차가 더 커지고 있다.

04. D2C 자사몰을 기반으로 하는 헤드리스 솔루션 기존 기능에 마케팅, CRM 등 다양한 기능을 고도화시킬 계획이며, 추후 오프라인 D2C 커머스를 통해 옴니채널을 확장하고 글로벌 D2C 시장에 도전할 생각이다.

부산 8기

(주)코솔러스

김성현 대표

환경을 생각하는 난연 기술

친환경 난연 마스터배치^{MB*}, 전자 제품용 기능성 코팅 재료를 제조하는 코솔러스는 끊임없는 기술 개발로 글로벌 화학소재 강소기업을 꿈꾼다.

*마스터배치

밀리미터^{mm} 사이즈의 원통형 플라스틱 팻렛을 말하며, 플라스틱 원재료의 첨가제로 사용해 고객맞춤형 성능 (예: 난연·방염 등)을 구현한다.

Questions

01. 친환경 난연 MB 개발 배경은 무엇인가?
02. 코솔러스만의 핵심 기술은 무엇인가?
03. 주행 거리와 히터 시장은 어떠한가?
04. 코솔러스의 성장 가능성을 어떻게 보는가?

할로겐프리 MB 원재료 시장은
이스라엘, 일본에서
장악하고 있는데,
이를 국산화해 세계 시장에
도전하고자 한다.

Answers

01. 코솔러스는 자동차 시트의 열선 피복 및 전기자동차 복사열 히터 피복에 들어가는 친환경(할로겐프리) 난연 MB를 만드는 기업이다. 2006년부터 전 세계는 프레온, 테프론 등 할로겐 물질의 사용을 규제하고 있다. 또한 ESG를 통해 인류의 지속가능성에 대해 새로운 도약을 요구한다. 코솔러스는 인체에 독성이 없는 원료(할로겐프리)를 바탕으로 난연 MB를 생산해 화재로부터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자 한다.
02. 세계 시장 규모는 약 10억 달러로, 매년 10%씩 성장하고 있다. 코솔러스의 핵심 기술은 난연 MB 제조 시 필요로 하는 원재료의 독자적인 합성, 즉 새로운 물질을 만들 수 있는 능력으로 공정에 대한 노하우를 바탕으로 기술과 가격 경쟁력을 확보하고 있다. 할로겐프리 MB 원재료 시장은 이스라엘, 일본에서 장악하고 있는데, 이를 국산화해 세계 난연 시장에 도전하고자 한다.
03. 히터의 효율은 주행 거리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며, 현재 시장에서는 탄소나노튜브^{CNT}를 기반으로 하는 면상발열체와 금속도금 탄소섬유^{MCF}를 활용한 방식이 있다. 코솔러스는 MCF 생산 기업과 공동으로 복사열 히터 선을 개발하고 있으며, 복사열 히터 선 피복에 친환경 난연 기능을 부여해 안전성을 향상시키고자 한다.
04. 국내에서는 자동차 열선 피복 및 전기차 복사열 히터 피복에 들어가는 친환경 난연 MB를 제공해 자동차 열선 및 전기차의 공급 확대와 맞물려 지속적인 성장이 가능하다고 판단한다. 난연에 대한 사회 곳곳에서의 요구가 증대함에 따라 고속성장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한다.

마포 9기

(주)에스엘즈

이유미 대표

설계 자동화 기반
증강휴먼 건설 기술

스마트 건설 기술을 개발해 현장에 적용하는 콘테크^{ConTech} 기업 에스엘즈는 건설 분야에서 디지털 트윈을 구축해 설계와 시공 과정의 문제점을 해결한다.

Questions

01. 에스엘즈에 대해 소개해 달라.
02. 증강휴먼 건설 기술의 개발 배경은 무엇인가?
03. 스마트라우팅 AI의 경쟁력은 무엇인가?
04. 에스엘즈의 성장 가능성은 어떻게 보고 있나?

실제 건설 현장에서 필요한
솔루션에 대한 이해도가 높은
인재들과 현장 적용성이 높은
IT 기술력을 확보하고 있는 것이
가장 큰 강점이다.

Answers

01. 에스엘즈는 건설 분야에 AI, 가상현실^{VR}, IT 기술을 접목한 스마트 건설 기술을 개발하고 현장에 적용하는 콘테크 기업이다. 대규모 건설 기업의 채택을 받은 국내외 최고 수준의 설계 자동화와 확장현실 건설 기술을 보유하고 있으며, 디지털 트윈 소프트웨어를 자체 기술로 개발해 새로운 분야를 선도하고 있다.
02. 반도체 플랜트는 새로운 제품을 출시할 때마다 기존 설비의 20~30%를 교체하면서 막대한 양의 파이프를 다시 연결하고 설치해야 한다. 이 과정에서 설계 오류가 발생하고 도면을 수정하는 프로세스를 수차례 반복한다. 에스엘즈는 건설 분야에서 디지털 트윈을 구축해 설계와 시공 과정에서 발생하는 문제들을 해결하는 것을 목표로, 최적화된 AI 설계 자동화와 직관적인 XR 증강시공을 결합한 설계 자동화 기반 증강휴먼 건설 기술을 개발했다.
03. 에스엘즈가 개발한 '스마트라우팅 AI'는 플랜트 MEP(기계·전기·배관) 설비의 설계 공정을 자동화하는 솔루션이다. AI 설계 자동화의 중심이 되는 스마트라우팅 알고리즘은 장애물을 회피하는 수백 개의 3차원^{3D} 루트를 즉시 계산하고 최적화해 배치하는 기술로, 복잡한 MEP 설계 프로세스를 획기적으로 단축할 수 있다.
04. 에스엘즈는 건설 현장에서 필요한 솔루션에 대한 이해도가 높은 인재들과 현장 적용성이 높은 IT 기술력을 확보하고 있다. 이런 강점은 소프트웨어 개발에만 치중하는 경쟁사와 비교했을 때 더욱 명확히 드러난다. 에스엘즈는 기술의 차별화와 솔루션의 확장으로 경쟁력을 확보하고 올해에는 미국의 반도체 플랜트 건설 시장에 진출해 현지 법인을 설립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이건호
(주)로스웰워터 대표

전 세계적으로 대도시화가 심화되고 친환경을 위한 노력이 강화되면서 수처리에 대한 관심과 요구가 날로 커지고 있다. 하지만 시간과 비용, 하수처리장에 대한 사람들의 편견 등을 고려할 때 처리해야 할 하수 용량이 늘어나는 것에 비례해 하수처리장을 신축·증설하기란 사실상 어렵다. 결국 하수처리장의 면적을 줄이고 효율을 높이는 수처리 공법 혁신이 이 분야의 매우 중요한

과제로 떠올랐는데, 남다른 기술력으로 이를 실현하고 있는 기업이 있어 눈길을 끈다.

친환경 수처리 공법 전문 기업인 로스웰워터가 그 주인공이다.

현재 수처리에 범용적으로 활용되고 있는 연속흐름회분식공법 CSBR을 개발한 발명가 피터 팀파

수처리 분야의 숨은 강자 로스웰워터는 세계 최고 수준의 친환경 수처리 공법을 보유한 기업으로 국내외 수처리 신축 및 증설 프로젝트를 잇달아 수주했다.



<거래 기업 인터뷰>

수처리에 혁신적 효율을 더하다

니와 국내 대표 건설사에서 30년 넘게 수처리 사업 전문가로 활약해온 이건호 대표가 힘을 합쳐 2012년 12월 설립한 기업이다. 로스웰워터는 국내 최대의 하수처리장 지하화 사업인 안양 새물공원에 특허 공법을 적용했다. 2017년 7월 준공 후 80만 명이 배출하는 일일 하수 25만 톤을 처리하고 있는 이 시설은 국제물협회 IWA로부터 '2017년도 최우수시설상 Best Practice'에 선정되었다.

이후 볼리비아 타리자, 인도 뭄바이 반두프 Bhandup, 삼성전자 평택반도체 폐수 1·2·3차 처리장 등 국내외 굵직한 수처리 신축·증설 프로젝트를 잇달아 수행하면서 수처리 분야 세계 최고 수준의 히든 챔피언으로서 입지를 다져왔다.

‘글로벌 No.1 수처리 기업’을 향한 도전

로스웰워터는 기존의 CSBR 공법을 한 단계 업그레이드한 MCSBR Modified CSBR을 개발, 2020년 12월 환경신기술 인·검증을 획득했다. 하·폐수 오염물질은 활성 슬러지라는 미생물 덩어리가 처리하는데, 부족한 미생물 증대를 위해 화장품의 보습제로 사용되는 트레할로스는 물질을 혼입한 새로운 미생물 집을 개발해 탁월한 수처리 효율을 증명했다. 이와 함께 과도한 공기를 머금어 바닥에 가라앉지 않는 미생물 슬러지 내부의 탈기를 위한 사이클론 시스템도 개발했다. 이러한

MCSBR 공법을 적용하면 구조물 증강이나 부지 확장 없이 신설 비용의 30% 건설비로 처리량을 최대 150%까지 늘릴 수 있다는 사실을 최근 준공된 삼성전자 평택반도체 제1폐수처리장 일 12만 톤 확장을 통해 입증했다.

이처럼 혁신적인 수처리 공법을 개발했지만, 2021년 로스웰워터의 자금 사정은 매우 좋지 않았다. 신기술 개발과 환경신기술 인·검증에 거의 모든 역량을 쏟아 부었기 때문이다. 이때 구원투수로 나선 존재가 있으니, 바로 IBK기업은행 구리지점이었다. 로스웰워터의 수처리 기술력을 높이 산 구리지점은 2022년 ‘성장유망기업 도약지원 프로그램’을 시작으로 기술보증기금과 연계한 중소벤처기업부 R&D사업화 자금, 혁신투자부와 공조한 모험자본 등을 적기에 지원했다. 이 같은 적극적 지원에 감동한 로스웰워터는 구리지점과의 동반성장을 이어 나가고 있다.

로스웰워터는 “앞으로는 수처리 효율 증대를 넘어 방류수 수질을 높이는 신기술도 적극적으로 개발하고, 전 세계의 물을 더욱 깨끗하게 만드는 ‘글로벌 No.1 수처리 기업’으로 나아가겠다”는 비전을 밝혔다. 그 곁에는 구리지점이라는 든든한 지원군이 매 순간 함께할 것이다.

최고 기술력의 수처리 공법 전문 기업 로스웰워터	
창립 연도	2012년
핵심 기술	CSBR, PKG-CSBR, MCSBR, CMBR 수처리 공법
주력 제품	MCSBR Modified CSBR 수처리 시스템



유동기
IBK기업은행
구리지점장

경기 동북부 지역의 핵심 지점으로 나아가다

1981년 2월에 개점, 43년의 오랜 역사를 자랑하는 구리지점은 구리시장 인근의 자영업자 및 고령 고객의 든든한 금융 동반자가 되어 왔다. 코로나19 팬데믹 이후에는 소상공인의 초저금리 대출 지원에 중점을 두고 정책금융기관 본연의 역할에 충실했으며, 최근에는 구리, 남양주, 포천 일대의 우량 기업을 집중 발굴해 시설·운전자금을 적기에 지원하는 데 힘쓰고 있다. 로스웰워터와의 깊은 인연도 이러한 과정 속에서 피어났다. 2016년 구리지점과 첫 거래 후 이렇다 할 협력이 없었지만 2020년 이후 로스웰워터의 수처리 공법 기술에 대해 다시 한 번 훑아보면서 우수한 사업성을 발견했고, 이를 토대로 다각적인 금융 지원에 돌입한 것이다. 덕분에 로스웰워터는 자금난을 타개할 수 있었으며, 구리지점은 지속 성장 가능성이 매우 높은 기술 중심 기업을 핵심 고객 리스트에 올릴 수 있었다.

유동기 지점장은 “앞으로도 기술력이 높지만 자금 사정이 뒷받침되지 않아 제대로 성장하지 못하는 기업들을 적극 발굴할 것”이라며 복합위기 경제상황 속 경기 동북부 지역의 위기극복과 성장을 위해 적극 지원하겠다는 뜻을 분명히 했다.

유니콘 기업의 시작은 스타트업!

위기의 경제 상황 속에서 스타트업은 새로운 기회를 발굴하고 경제 부흥을 이끌 동력이 될 수 있다.
미래 유니콘 기업으로 성장할 기반이 되는 ‘도전! K-스타트업 2023’ 창업 대회를 소개한다.

우리 경제는 그동안 경험하지 못한 복합위기와 불확실한 상황에 놓여 있다. 기술 변혁, 기후변화, 양극화 등 녹지 않은 환경이 끊임없이 이어지고 있다. 고통받는 소상공인, 중소기업이 재기할 수 있도록 정부의 역할이 강화됨과 동

시에 성장 잠재력이 있는 기업이 생존을 넘어 지속적으로 성장할 수 있게 충분한 정책적 지원이 필요한 시점이다.

위기 속에도 늘어난 한국의 유니콘 기업

우리 경제 활력을 위한 트리거^{Trigger}로 대 표적인 것이 유니콘^{Unicorn} 기업이다. 유니콘 기업은 벤처캐피털로부터 기업 가치를 1조 원 이상 평가받은 비상장 기업으로 창업한 지 10년 이하인 거대 신생 기업을 의미한다. 원래 유니콘이란 뿔이 하나 달린 말처럼 생긴 전설 속 동물을 말하는데 스타트업이 상장하기도 전에 기업 가치 1조 원 이상이 되는 것은 마치 유니콘처럼 상상 속에서나 존재할 수 있다는 의미로 사용하기 시작했다. 2022년 말 기준 기업 가치 1조 원을 돌파한 이력을 가진 국내 기업은 총 34개에 달한다. ‘벤처투자촉진에 관한 법률’상 투자가 금지된 상호출자제한집단 소속 회사 등을 제외하면 국내 유니콘 기업은 22개사다. 세계 유니콘 기업 보유 국가별 순위를 발표하고 있는 CB인사이드를 기준으로 2022년 말 국내 유니콘 기업 수는 14개로 세계 10위에 해당한다. 미국, 중국, 인도가 각각 651개사, 172개사, 70개사인 점을 고려할 때 미흡하다고 평가할 수 있지만, 국내 창업·벤처 붐이 일기

시작한 2000년 이후 지난 20년 만의 성과로 높이 평가되는 부문이기도 하다. 특히 최근 복합위기로 세계적인 유니콘 기업 탄생이 절반 이하로 줄어든 것과 달리 한국은 연간 최다였던 2021년과 동일하게 2022년 7개사가 유니콘 기업으로 진입하면서 선전했다는 평가다.

유망 예비창업자들을 위한 기회

그런 의미에서 많은 스타트업이 지난 1월 중소벤처기업부가 공고한 ‘도전! K-스타트업 2023’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것을 추천한다. 도전! K-스타트업 2023은 범부처 창업경진대회로 우수한 창업 아이템을 보유한 유망 예비창업팀을 발굴·포상해 창업 분위기를 확산하고 미래 유니콘 기업을 육성하고자 하는 정책이다. 2016년 중소벤처기업부, 교육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국방부 등 4개 부처 협업으로 시작한 이래, 협업 부처 및 예선대전(리그)이 점진적으로 확대되고 있으며, 매년 평균 5,000여 팀 이상이 참가하는 등 유망 예비창업자들이 혁신적인 창업 상품을 선보이는 국내 최대 규모의 창업경진대회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이번 대회는 지난 1월 통합공고를 시작으로 8월까지 부처별 예선대전이 진행되며 이후 예선대전을 통과한 예비창업자들이 경쟁하는 통합본선(200개 팀)을 거쳐 왕중왕전에 진출할 30개 팀을 가리게 된다. 10월에는 최종 무대인 왕중왕전을 통해 최고의 창업 기업 10개사와 예비창업자 10개 팀을 선정해 총상금 15억 원

(팀당 최대 3억 원), 대통령상·국무총리상을 시상하는 것으로 마무리될 예정이다. 다양한 분야에서 혁신을 추구하는 예비창업자들의 많은 도전을 기대하며 누리집(www.k-startup.go.kr)에 게시된 통합공고문과 예선대전 운영 부처별 세부 모집공고를 참고하기를 바란다.



<2023 도전! K-스타트업>

신청 기간 2023년 1월 26일~6월 30일

신청 방법 예선리그별 접수처로 신청

신청 대상 예비창업자와 3년 이내 창업 기업 대표자

부처별 예선대전 11개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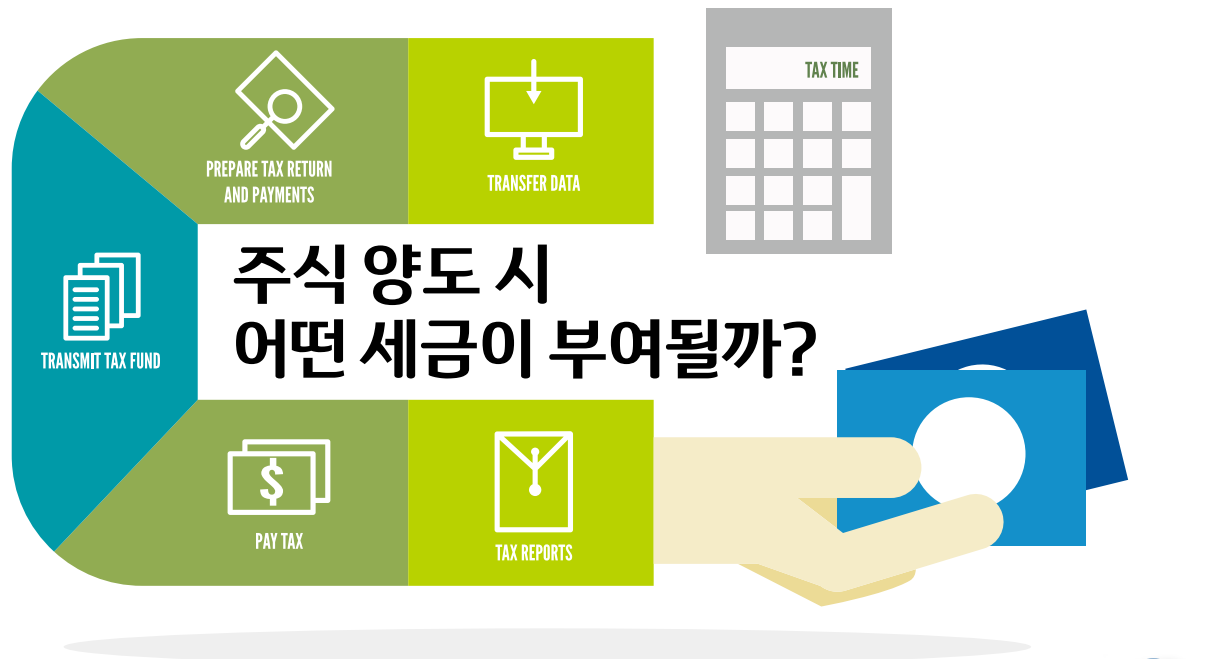
	운영기관	참가자격	신청접수
혁신창업대전(중기부)	서울창조경제센터(창업진흥원)	예비창업자, 3년 이내 창업 기업	www.k-startup.go.kr
학생대전(교육부)	한국연구재단, 한국청년기업가정신재단	예비창업자, 3년 이내 창업 기업	www.u300.or.kr
연구지대전(과기부)	과학기술사업화진흥원	대학과기특성화대, 출연(연), 연구소기업 등 보유한 공공연구 성과 기반 예비창업팀, 업력 3년 이내 초기 창업 기업	www.compa.re.kr
국방대전(국방부)	국방전직교육원	대한민국 현역장병	각 군 홈페이지 참조
관광대전(문체부)	한국관광공사	관광 분야 예비창업자, 7년 이내 창업 기업	contest.tourbiz.or.kr
환경대전(환경부)	한국환경산업기술원	환경 분야 예비창업자, 3년 이내 창업 기업	www.ecostartup.kr
여성대전(중기부·여가부)	(재)여성기업종합지원센터	예비 여성 창업자 창업 3년 미만 여성 기업(투자 유치 30억 미만)	www.kbiz.or.kr
부동산산업대전(국토부)	한국부동산원	프롭테크 등 부동산 산업 분야 창업자	www.reb.or.kr
국방기술대전(방사청)	국방과학연구소	국방 기술을 활용한 창업 또는 사업화 아이디어를 보유한 창업자	www.dapa-startup.kr
산림대전(산림청)		산림 분야에 관심 있는 20·30대 예비창업자, 3년 이내 창업 기업	www.fprest.go.kr
지식재산대전(특허청)	한국발명진흥회	지식재산 ^{IP} 을 보유 및 출원한 예비창업자, 3년 이내 창업 기업	www.kipa.org

자료 중소벤처기업부

국내 유니콘 기업 현황

기업명	분야	CB인사이드	현재 유니콘 기업	비고
엘로모바일	모바일	○	○	
엘앤피코스메틱	화장품	○	○	
비바리퍼블리카	핀테크	○	○	
아놀자	온·오프라인연계 서비스	○	○	
위메프	전자상거래	○	○	
지피클럽	화장품	○	○	
무신사	전자상거래	○	○	
컬리	신선식품 배송	○	○	
직방	부동산 중개	○	○	
버킷플레이스	전자상거래	○	○	
리디	콘텐츠 플랫폼	○	○	
아이지애어웍스	빅데이터 플랫폼	○	○	2022년 신규
메가존클라우드	클라우드 서비스	○	○	2022년 신규
트릿지	데이터 및 무역 플랫폼	○	○	2022년 신규
두나무	핀테크		○	
A사(기업명 비공개)	도소매업		○	
당근마켓	전자상거래		○	
빗썸코리아	핀테크		○	
여기어때컴퍼니	O2O 서비스		○	2022년 신규
오아시스	신선식품 새벽배송		○	2022년 신규
시프트업	모바일 게임 개발		○	2022년 신규
한국신용데이터	소상공인 전문 서비스형 소프트웨어 ^{SaaS}		○	2022년 신규

자료 중소벤처기업부



일반적으로 중소기업 대표가 보유한 회사의 주식은 비상장주식에 해당한다. 이들이 보유하고 있는 주식에 따라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데 2025년부터는 추가로 금융투자소득세가 과세될 예정이다. 이번 호에서는 보유 주식 양도에 따른 양도소득세, 증권거래세 및 금융투자소득세에 대해 알아보고자 한다.

양도소득세

① 과세대상

과세대상	내용
주권상장법인의 주식 등	코스피, 코스닥, 코넥스 대주주가 소유한 주식 등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단 1주만 양도해도 양도소득세 과세대상
비상장법인의 주식 등	대주주 상관없이 모두 양도소득세 과세대상
국외 주식 등	양도일까지 계속 5년 이상 국내에 주소 또는 거소를 둔 거주자가 양도한 국외 주식은 양도소득세 과세대상
*특정 주식, **부동산과다보유법인 주식 등	일정한 조건의 주식 등을 양도하는 경우 주식 등이 아닌 기타자산의 양도로 양도소득세 과세대상(누진세율 6~45%)

*특정 주식: 골프장, 휴양시설 등의 부동산 보유 비율 80% 이상 법인

**부동산과다보유법인 주식 등: 자산총액 중 부동산 등의 보유 비율 50% 이상 법인의 과점주주가 양도하는 지분율이 50% 초과

② 과세표준

주식의 실지거래가액인 양도가액에서 취득 당시의 실지거래가액 취득가액과 증권사 수수료, 증권거래세 등 양도비 등의 필요경비를 차감하고, 기본공제인 연 250만 원을 공제한 금액이 과세표준이 된다. 당해 연도 상반기와 하반기의 예정신고 시, 국내 주식 간 양도손익과 확정신고 시 국내 주식과 국외 주식 간 손익 통산이 가능하나, 다음 연도로 이월공제는 되지 않는다. 그리고 양도차익과 양도차손은 과세대상 주식 간에만 통산이 가능하므로 상장법인 소액주주와 상장법인 대주주로서 발생한 양도차손익은 통산하지 않는다.



현정주 세무법인 세일 화성지점 대표세무사
전 IBK기업은행 기업지원 컨설팅부 수석세무사로 근무하며, 중소기업 가업승계 컨설팅을 100회 이상 진행한 바 있다.

③ 세율

주식 등의 양도 시 과세표준에 적용되는 세율은 대주주, 중소기업 해당 여부와 과세표준에 따라서 적용되는 세율이 아래와 같이 달라진다. 국외 주식은 중소기업인 내국 법인이 국외에 상장한 주식의 경우 10% 세율이 적용되고, 그 외에 외국 법인이 발행한 주식은 20% 세율이다.

구분	세율(지방소득세 별도)
소액주주	중소기업 주식: 상장·장외·비상장 10% 중소기업 외 주식: 상장·장외·비상장 20%
대주주	중소기업 주식: 상장·비상장 20%(과표 3억 원 이하) 중소기업 외 주식: 상장·비상장 25%(과표 3억 원 초과) 1년 미만 보유 30%
국외 주식	중소기업 주식: 10% 그 밖의 주식 등: 20%
특정 주식, 부동산과다보유법인 주식 등	누진세율(6~45%)

2023년 개정된 대주주 요건

구분	지분율	보유 금액	세율(지방소득세 별도)
코스피	1%	10억 원	지분율 판단 시 - 최대주주 등은 직계존비속, 3촌 인척, 4촌 혈족 등 모두 합산 - 최대주주 아니면 본인만 기준
코스닥	2%		
코넥스	4%		
비상장	4%		

④ 주식 등 양도소득세 신고·납부기한

구분	신고·납부기한	신고기한 (예시: 양도 2022. 7. 13)
상장·비상장주식	양도일 속하는 반기의 말일부터 2개월 (상반기: 7. 1~8. 31, 하반기: 1. 1~2. 28)	2023. 2. 28
특정 주식, 부동산과다 보유법인 주식	양도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개월	2022. 9. 30
국외 주식, 파생상품	다음 연도 확정신고 기간에 신고(예정신고 제외)	2023. 5. 31

주 상장법인의 소액주주는 장외거래만 양도소득 과세, 비상장법인의 소액주주가 K-OTC(Korea Over-The-Counter)를 통해 양도한 중소·중견기업의 주식 등은 과세 제외

⑤ 불이행에 따른 규정

양도소득세를 과소신고(10%), 예정누락(20%), 기타 부정행위 등으로 인한 무·과소신고(40%) 등을 한 경우 신고불이행에 대한 가산세가 부과되고, 납부 기한까지 납부불이행에 따른 가산세(1일당 미납세액의 0.022%)도 추가 납부해야 하므로 절세를 위해 신고·납부기한을 준수해야 한다.

증권거래세

법인의 주식이나 지분의 소유권이 유상이전될 때 당해 주권이나 지분의 양도자에게 양도가액을 기준으로 부과하는 세금이다. 상장주식 등 장내에서 거래하는 경우에는 증권사나 한국예탁결제원 증권거래세를 신고하고 있으나, 증권사 등이 거래징수를 하지 않는 상장·비상장주식의 장외거래에 대해서는 양도일이 속하는 반기의 말일부터 2개월 이내에 신고·납부해야 한다.

금융투자소득세

대주주 여부와 관계없이 국내의 주식, 채권, 펀드, 파생상품 등 금융 투자로 얻은 일정 금액(주식은 5,000만 원·채권 등 기타 250만 원)이 넘는 소득에 대해 과세하는 제도다. 기존에는 상장사(코스피 1%·코스닥 2%·코넥스 4% 이상) 지분을 보유하고 있으면 대주주로 분류하고 양도소득세를 부과했는데, 금융투자소득세는 대주주와 상관없이 연간 5,000만 원 이상 금융투자소득을 얻는 투자자에게 22%(연간 3억 원 초과 시 27.5%) 세금을 부과한다.

과세 기간은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로 과세 기간별 금융 투자 상품의 소득 금액과 손실 금액을 합산해 계산하므로 손실과 이익을 통산할 수 있다.

세액 계산은 금융투자소득 금액에서 금융 투자 손실(5년간 이월결손금 이월공제)과 금융투자소득 기본공제(연 5,000만 원)를 제한 후 세율을 적용한다.

다만, 금융투자소득세 시행이 2년간 유예됨에 따라 2025년부터 과세된다. 대주주의 경우는 현행처럼 양도소득세를 부과한다.

직장 내 무엇이 부당한 차별이고, 무엇이 정당한 차별일까?

우리나라는 현재 비정규직, 연령, 성, 장애인, 외국인 등에 대한 차별을 금지하는 법률을 도입하고 있다. '같은 것을 다르게, 다른 것을 같게 취급'한다면 직장 내 어떤 종류의 차별도 용인되지 않는다. 차별의 종류와 그 근거에 대해 살펴보자.



정봉수
강남노무법인 대표 노무사
외국계 기업의 노무 인사 자문을 담당하고 있으며, 20여 년간의 노무 경험을 활용해 다양한 노동 사례 실무서적을 발간해 왔다.

•• 우리나라 헌법 제11조 1항은 “누구든지 성별, 종교 또는 사회적 신분에 의해 (중략) 모든 영역에서 차별을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와 관련해 ‘근로기준법’도 균등한 처우 규정을 두고 ‘국적’을 추가해 “성별, 국적, 신앙과 사회적 신분을 이유로 근로 조건에 대한 차별적 처우를 하지 못한다”고 규정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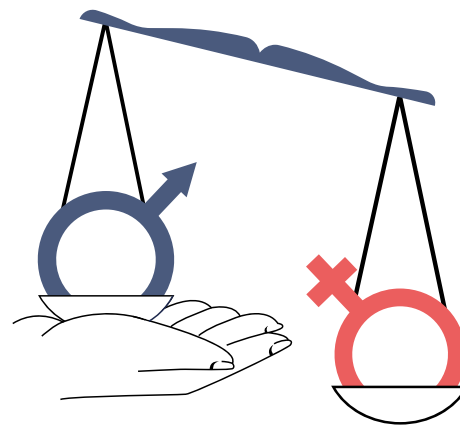
‘근로기준법’ 외에도 사회적 변화에 따른 차별 금지 조항이 계속해서 추가되어 현재는 비정규직, 연령, 장애인, 외국인 등에 대한 차별 금지 규정을 개별 법률로써 도입하고 있다.

그렇다면 차별 금지에 대한 판단 기준은 무엇일까? 법원은 차별적 처우란 ‘같은 것

을 다르게, 다른 것을 같게 취급하는 것’이라고 정의하면서 다음 2가지 원칙을 제시하고 있다.

첫째, 차별적 처우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우선 그 전제로 차별을 받았다고 주장하는 사람과 그가 비교대상자로 지목하는 사람이 본질적으로 동일한 업무 집단에 속해 있어야 한다.

둘째, 같은 사업장에서 같은 직종에 근무하는 근로자 집단이라고 하더라도 근로 내용, 근무 형태 등 제반 여건을 고려하고 합리적인 기준을 정해 차별하는 경우에는 정당한 차별로 인정하고 있다. 각 분야별 대표적 차별의 판단 기준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



남녀 성차별 금지

성차별 금지는 헌법 제11조 1항에 명시되어 있으며, 헌법 제32조 4항에서 “여자의 근로는 특별한 보호를 받으며, 고용, 임금 및 근로 조건에 있어서 부당한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고 구체적으로 기술하고 있다. 이를 현실적으로 반영하는 ‘근로기준법’ 제6조에서는 성차별을 금지하고, 위반한 자에 대해 벌칙 조항을 두고 있다. 특히 1987년에 제정된 ‘남녀고용평등법’에서는 성차별(제2조)을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다.

첫째, ‘차별’이란 사업주가 근로자에게 성별, 혼인, 가족 안에서의 지위, 임신 또는 출산 등의 사유로 합리적인 이유 없이 채용 또는 근로의 조건을 다르게 하거나 그 밖의 불리한 조치를 하는 경우다. 둘째, 사업주가 채용 조건이나 근로 조건은 동일하게 적용하더라도 그 조건을 충족할 수 있는 남성 또는 여성이 다른 한 성^성에 비해 현저히 적고 그에 따라 특정 성에게 불리한 결과를 초래하며 그 조건이 정당한 것임을 증명할 수 없는 경우를 포함한다. 즉, 기업 문화에서 간접적인 차별도 성차별로 인정할 수 있다.

셋째, 차별에 대한 예외로서 △직무의 성격에 비추어 특정 성이 불가피하게 요구되는 경우 △여성 근로자의 임신, 출산, 수유 등 모성 보호를 위한 조치를 하는 경우 △그 밖에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적극적 고용 개선 조치를 하는 경우를 두고 있다. 이는 다른 성에 대한 역차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적극적 개선 조치다.



신앙 등에 의한 차별 금지

신앙을 이유로 한 차별은 특정 종교, 종교적 신념, 정치적 세계관, 사회주의적 신조, 특정 정당의 정치노선 등을 이유로 해당 근로자를 차별하는 것이다. 다만, 특정 사상과 직접적으로 연결된 목적으로 수행하는 사업인 ‘경향사업’에 있어서는 그 사업 목적에 반해 행동하는 경우에는 차별적 처우를 허용하고 있다. 대법원도 경향사업에 반하는 근로자의 행위에 대해 다음과 같이 정당한 해고로 인정하고 있다. “근로자에 대한 징계 사유인 부동산 투기 행위가 근로자의 사생활에서의 비행에 불과하다고 할지라도, (중략) 도시개발공사 소속 근로자의 부동산 투기 행위는 객관적으로 그 공사의 사회적 평가에 심히 중대한 악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평가될 수 있는 경우라고 할 것이다.”



국적에 의한 차별 금지

대한민국의 국적을 소유하지 않은 외국인근로자, 해외동포, 불법체류자 등을 대상으로 한 차별이 발생할 수 있다. 국적에 의한 차별은 ‘근로기준법’ 제6조 “국적을 이유로 근로 조건에 대한 차별적 처우를 하지 못한다”는 규정과 위반 시 관련 벌칙 규정에 따른다. 다만, 차별에 합리적인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예외가 인정된다. 관련 행정해석은 “국적을 이유로 근로 조건을 차별하는 것에 해당하는지의 판단은 근로 조건에 대한 차별이 단순히 국적만을 이유로 한 것인지 여부와 차별의 대상인 근로 조건에 대해 임금, 근로시간 등 근로자 대우에 관한 일체의 요소를 전반적으로 고려해 합리적인 기준에서 벗어난 차별이 있었는지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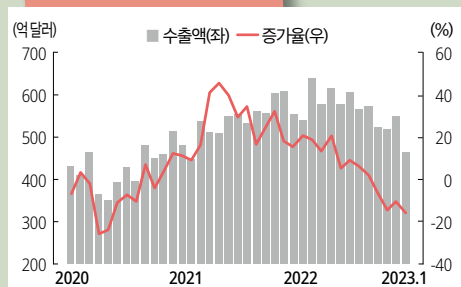
사회적 신분에 의한 차별 금지

최근에 사회적 신분으로 인한 차별 사건에 대한 판결이 화제다.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해당 근로자들은 계약직 근로자로 입사해 업무직(무기계약직) 근로자로 전환되었다. 이들은 회사에서 일반직 근로자들과 달리 직급 승진도 적용받지 못했고, 일반직 근로자들과 보수 규정도 다르게 적용받으며 주택, 가족, 식대 등의 수당도 지급받지 못했다. 이에 근로자들은 이러한 차별은 “근로기준법 제6조의 균등처우규정을 위반한 차별적 대우”라며 수당 지급을 청구했다. 이에 법원은 “직업뿐 아니라 사업장 내의 직종, 직위도 사회적 평가를 수반하거나, 근로자 스스로의 의사나 능력으로 벗어날 수 없는 사회적 분류라면 사회적 신분이라 할 수 있다”고 판단하며 무기계약직을 ‘사회적 신분’으로 판단했다. 

한눈에 읽는 경제 동향

KOREA

수출 및 증가율



주 증가율은 전년 동월 대비

자료 관세청

대외 여건 악화로 수출 부진이 지속되는 가운데 물가는 오름폭 확대
1월 수출(462.8억 달러)은 고물가·고금리 지속으로 글로벌 경기가 둔화되고, 반도체 업황이 악화되며 전년 동월 대비 16.6% 감소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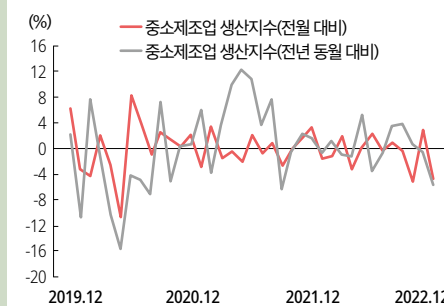
※ 지역별 수출(전동비·%) : 중국(-31.4), 미국(-6.1), EU(0.2)

※ 품목별 수출(전동비·%) : 자동차(21.9), 선박(86.3), 반도체(-44.5)

※ 전체 수출 감소 기여율(전동비·%) : 대 중국(46), 반도체(52), 대중국 반도체(28)

1월 소비자물가는 공공요금 인상되고 한파로 인한 작황 부진으로 농축수산물 가격 오름폭이 확대되며 전년 동월 대비 5.2% 상승했다.

생산



자료 통계청

Small Business Trend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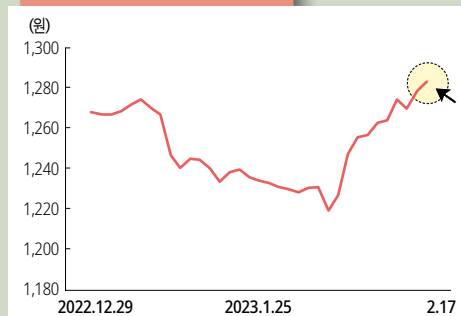
생산, 전월 대비 감소

2022년 12월 중소제조업 생산은 전월 대비로는 4.6% 감소했으며, 전년 동월 대비로는 5.7%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업종별*로는 전월 대비 반도체(4.9%), 1차금속(3.1%), 전기장비(2.4%) 등에서 증가했으나, 자동차(-9.5%), 전자부품(-13.1%), 고무·플라스틱(-6.5%) 등에서 감소했다. 전년 동월 대비로는 자동차(12.1%), 의약품(14%), 기타운송장비(4.1%) 등에서 증가했으나, 반도체(-15.8%), 전자부품(-41.5%), 화학제품(-16%) 등에서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업종별 생산증감률은 중소기업, 대기업을 모두 포함한 수치임.

Exchange Rate

원/달러 환율 동향



주 매매기준율

자료 한국은행

2월 원/달러 환율은 2달 만에 장중 1,300원대 재진입
(2023.1.17일 1,234.0원→2.8일 1,256.0원→2.17일 1283.7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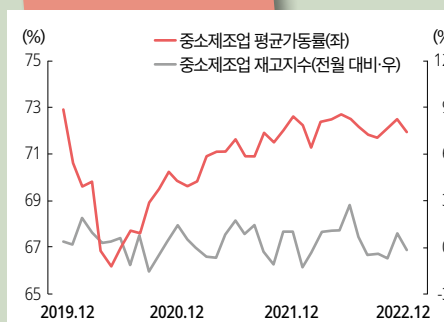
2월 원/달러 환율은 미국의 1월 소비자물가지수가 시장 예상치를 초과해 통화 긴축 우려가 확대됨에 따라 장중 1,300원을 돌파했다. 미국 연방준비제도 Fed 주요 인사들이 기준금리 인상을 시사하면서 달러화 강세는 당분간 지속될 전망이다.

2023년 1분기 말 환율 전망은 1,254원

블룸버그에서 종합하는 주요 IB(11개사)의 2023년 1분기 말 원/달러 환율 전망은 평균 1,254원으로 조사되었다. '1,220원 이상 1,250원 미만'으로 전망한 IB가 JP모건체이스(1,240원) 등을 포함해 6개사로 가장 많았다.

* 환율 전망 응답 시기: 2023.1.25~2.14일

가동률 및 재고



자료 중소기업중앙회·통계청

가동률, 전월 대비 하락

2022년 12월 중소제조업 전체 평균가동률은 전월 대비 하락한 72%를 기록했다. 세부적으로는 소기업(5~49인)은 전월 대비 보합한 69.2%, 중기업(50~299인)은 0.5포인트 상승한 75.1%로 조사되었다.

재고, 전월 대비 감소

2022년 12월 중소제조업 재고는 전월 대비 0.2% 감소했다. 업종별*로는 전월 대비 자동차(4.2%), 전기장비(5.5%), 화학제품(1.9%) 등에서 증가했으나, 전자부품(-27.3%), 통신·방송장비(-23.2%), 기계장비(-2.8%) 등에서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업종별 재고증감률은 중소기업, 대기업을 모두 포함한 수치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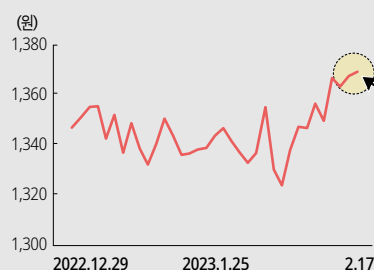
원/100엔 환율 동향



주 서울외국환중개 고시 기준

자료 한국은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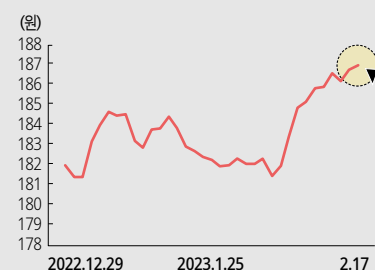
원/유로 환율 동향



주 서울외국환중개 고시 기준

자료 한국은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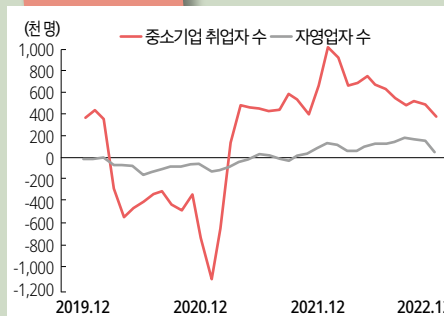
원/위안 환율 동향



주 매매기준율

자료 한국은행

고용



주 전년 동월 대비

자료 통계청

취업자 수, 전년 동월 대비 증가

2022년 12월 중소기업* 취업자 수는 전년 동월 대비 37만7,000명이 증가했다. 세부적으로는 종업원 수 5인 미만 중소기업에서 5만2,000명 감소, 5인 이상 299인 이하 중소기업에서 42만9,000명이 증가해 전체 중소기업 취업자 수는 2,479만7,000명으로 나타났다.

* 중소기업은 종업원 수 299인 이하.

자영업자 수, 전년 동월 대비 증가

2022년 12월 자영업자 수는 전년 동월 대비 5만3,000명이 증가해 556만4,000명을 기록했다.

중소기업 해외 진출 IBK기업은행이 도와드리겠습니다!

주요 내용

이용 대상
해외 진출에 관심 있는
중소기업

국가별 진출 정보

해외 진출에 필요한 정보가 한곳에!

IBK기업은행의 글로벌 네트워크 안내와 국가별 법인 설립 절차 등 해외 진출 시 도움이 되는 정보가 한곳에 있습니다.

해외 진출 지원제도

흩어져 있는 지원제도를 한눈에!

여러 국내 유관기관에서 제공하는 해외 진출 지원제도 정보를 한눈에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해외 투자 신고 절차

신고 절차를 빠짐없이 정확하게!

복잡한 절차와 유의사항을 쉽고 정확하게 파악하고 제출서류도 사전에 준비할 수 있습니다.

현지 금융 상담 신청

해외 영업점과 직접 금융 상담을!

현지 금융 상담이 필요한 경우 간편한 비대면 신청을 통해 IBK 해외영업점 담당자와 전문적인 금융 상담을 할 수 있습니다.

이용 방법

PC 또는 모바일에서
Globalbiz.ibkbox.net 입력
또는 QR 스캔

QR

문의사항

글로벌사업부 해외진출BOX 담당자
☎ 02-2031-5614, 02-729-6165

준법감시인 심의필 제2023-0570호(2023.02.08) 유효기간(2024.02.07)

※ 개별 상품에 관한 자세한 문의는 거래영업점 또는 IBK고객센터(☎1566-2566)를 이용해주시기 바랍니다. ※ 금융 상품 관련 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상품(서비스)설명서 및 약관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일반금융소비자는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에 따라 IBK기업은행으로부터 충분히 설명을 받을 권리가 있으며, 그 설명을 이해한 후 거래하시기 바랍니다. ※ IBK기업은행은 금융·향응을 받지 않습니다. 윤리경영 위반 사실이나 개선이 필요한 경우 신고해주시기 바랍니다.(☎02-729-7490, e-mail: ibkethics@ibk.co.kr)

쉬운 경영은 없지만 쉬운 बैंकिंग은 있습니다



기업에 담긴 당신의 진심을 알기에
60년간 축적된 데이터와 함께 새롭게 태어났습니다
더 나은 기업금융의 길을 걸어갑니다

IBK기업뱅킹



고객별 맞춤으로 쉽게!

자산관리서비스, 알림 서비스 등
고객 유형별로 맞춰 편리한 이용



비대면으로 빠르게!

영업점 방문 없이도 대출, 외환 업무와
개인 및 법인 카드 발급까지 가능



자금통제로 안전하게!

다단계 결제, 다양하고 편리한 결제라인
야간/주말 이용시간을 안전하게 제어

준법감시인 심의필 제2023-0651호(2023.02.13) [유효기간 : 2024.02.12]

※ 금융상품 관련 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상품설명서 및 약관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일반금융소비자는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에 따라 IBK기업은행으로부터 충분히 설명을 받을 권리가 있으며, 그 설명을 이해한 후 거래하시기 바랍니다. ※ 자세한 문의는 거래 영업점 또는 IBK고객센터(☎1566-2566)를 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IBK기업은행은 금융·향응을 받지 않습니다. 윤리경영 위반 사실이나 개선이 필요한 경우 신고해주시기 바랍니다.(☎02-729-7490, e-mail: ibkethics@ibk.co.kr)



IBK 기업은행

금융으로
만나는 새로운 세상

이 세상에 작은 기업은 없다

누군가는 기업에서

꿈을 시작하고

사랑하는 사람을

기쁘게도 합니다.

기쁨이론 실패에 울고,

보란듯 웃으며 이겨내고

이 순간도 누군가는 기업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기업에는 수많은 인생이 있습니다
그래서, 기업을 한다는 건 크고 막중한 일입니다